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23-04

수시연구

Tourism Balance:
Macro and Micro Level Empirical Analyses
with Policy Implications

김형중
이동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수시연구 2023-04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Tourism Balance:
Macro and Micro Level Empirical Analyses with Policy Implications

김형종·이동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 책임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 연구

이동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개요

Highlights

- 관광수지는 거의 매년 적자이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의 변화는 다른 나라 대비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오징어 게임 이후 케이콘텐츠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케이콘텐츠의 인기에 비례하는 방한 외래객의 증가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양질의 케이콘텐츠를 육성하고 성공한 케이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관광수지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음
- 관광수지 적자에는 다른 나라와의 소득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따라서 향후 아시아 지역 전반의 경제 성장은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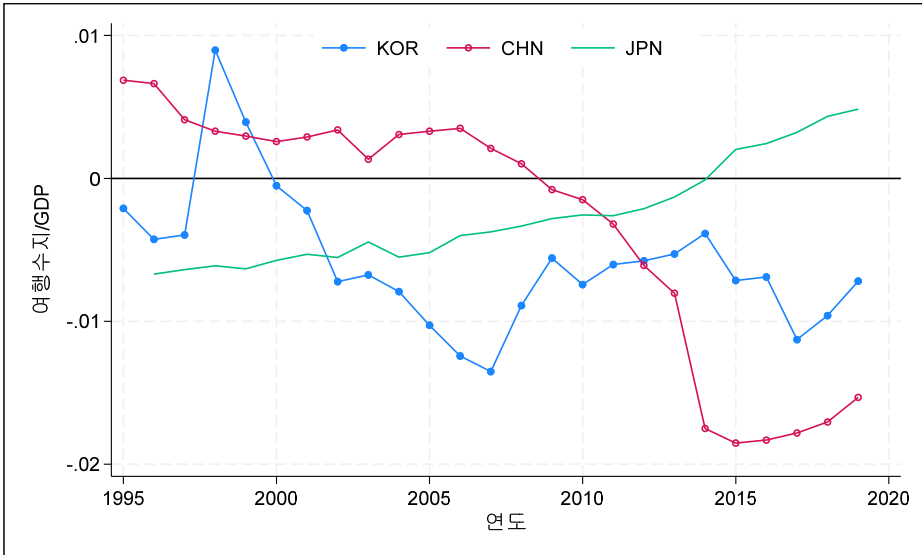
- (연구 배경 및 목적) 국제관광 재개 이후 관광수지 적자가 심화하여 관광수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고 관광수지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관광수지의 개념 및 동향

- 관광수지는 국제수지의 일반여행수지와 정의가 동일하며, 경상수지, 서비스수지, 여행수지의 하위에 속함
- 국제통화기금의 BPM6에 따라 작성되며, 현행 기준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간편 결제 서비스 지출이 정확하게 계상되지 않았을 가능성 있음
- 우리나라의 관광수지는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로 아시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적자이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광수지의 방향성 전환(적자⇌흑자)은 관찰하기 어려움
 -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관광수지 적자에서 흑자로의 전환은 해당 국가의 저성장과 중국인 아웃바운드의 급격한 증가가 결합한 이례적인 현상임
 - 중국의 인구 규모 및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현저히 크기 때문임
 -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의 관광수지를 비교하면, 일본은 개선되고 중국은 악화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특별하게 관광수지 적자가 크거나 악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개선된 것으로 보임

- 중국인 해외 관광객의 시의적절한 증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지금보다 큰 수준의 관광수지 적자를 보여 주었을 것임

[그림] 한중일 국내총생산 대비 여행수지 추이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3.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 경상수지 분석 연구(Chinn and Prasad, 2003)와 다양한 국제 관광 결정요인 연구들을 참조하여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고, 이를 세계은행 데이터로 분석함
- 실증분석 결과에서 경제적 요인이 관광수지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음
 - 상대소득, 상대성장률, 순해외자산, 유년인구비 등이 유의미하게 추정됨
 - 해외여행이 정상재라면 소득 증가가 해외여행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소득 증가에 따른 아웃바운드 증가와 관광수지 악화는 논리적으로 타당함
 -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양한 서브 샘플(subsample)에서도 거의 일관되었음
- 그중에서도 상대소득이 관광수지 결정에 가장 일관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상대소득으로 우리나라 관광수지 추이를 설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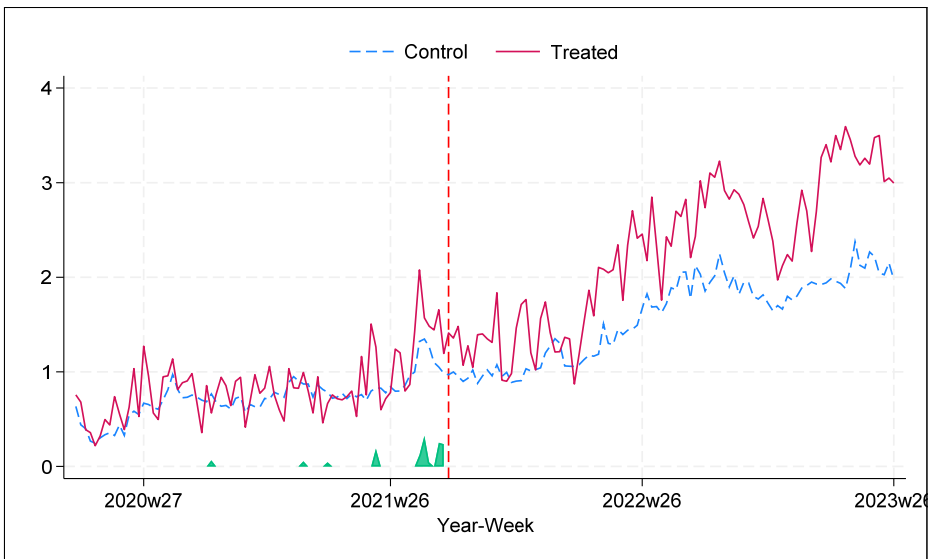
- 지난 30여 년 동안 일본 경제의 성장 정체로 일본 관광객의 유입 증가보다 우리나라 관광객의 일본 관광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시기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로의 중국 관광객 유입이 확대되었음

- 분석 결과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 관광수지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 주지만, 인구 고령화로 그러한 개선이 저조할 가능성도 있음

4. 관광수지와 케이콘텐츠

- 케이콘텐츠의 관광수지 개선 가능성을 분석하여 적극적 관광수지 개선을 타진함
 - 넷플릭스 인기 순위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수집하여 방한 외래객 데이터와 결합
 - 오징어 게임 이후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케이콘텐츠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

[그림] 합성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주: 그림의 시계열도에서 실선은 처치군(treated group), 점선은 대조군(control group)을 의미한다. 시계열도의 수직 점선(dashed-vertical line)은 오징어 게임을 공개한 2021년 32주차를 나타낸다. 본 그림은 보고서에서 보고하는 합성이중차분법 결과의 일부를 보고하고 있다.

- 분석 결과 케이콘텐츠의 인기 정도에 따라 실제로 방한 외래객 증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분석 결과 모두에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 케이콘텐츠 인기 순위를 점수(score)로 치환한 이원 고정 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 더미를 사용한 이원 고정 효과 모형, 동태적 모형, 합성이중차분법 등 다양한 모형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케이콘텐츠 효과를 발견함
- 따라서 케이콘텐츠를 활용하면 문화 산업과 관광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양질의 케이콘텐츠 생산이 필요함

5. 정책적 시사점

- 지속적인 인바운드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수지 개선 전략이 더 성공적일 수 있음
- 케이콘텐츠의 관광객 유치 효과가 실재하므로 성공한 케이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테마파크 등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여 관광수지 개선을 촉진할 수도 있음
 - 콘텐츠 산업 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업 집행의 효과성도 수시로 측정한다면 정책적인 성공 및 관광수지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구성	5
제2장 관광수지의 개념 및 동향	7
제1절 관광수지의 개념	9
1. 국제수지와 관광수지	9
2. BMP6 여행수지	11
제2절 우리나라 관광수지의 동향	15
제3절 관광수지 국제 비교	19
제4절 소결	25
제3장 거시적 분석: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27
제1절 분석 개요	29
제2절 관광수지 영향요인 및 모형 설정	31
제3절 실증분석 결과	36
1. 분석 데이터	36
2. 분석 결과	36
제4절 소결	46
제4장 미시적 분석: 관광수지와 케이콘텐츠	49
제1절 분석 개요	51

제2절 분석 데이터	53
제3절 실증분석 결과	66
1. 분석 모형	66
2. 동태적 효과	71
3. 강건성 검증	74
제4절 소결	83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85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8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0
참고 문헌 /	95
ABSTRACT /	99

표 목차

〈표 2-1〉 BMP6 제10장 구성	11
〈표 2-2〉 주요국의 2001년도 여행수지 (단위: 미화 백만 불)	20
〈표 2-3〉 주요국의 2019년도 여행수지 (단위: 미화 백만 불)	20
〈표 2-4〉 주요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및 여행수지 변화	22
〈표 3-1〉 분석 자료의 기술 통계량	37
〈표 3-2〉 기본모형 분석 결과	40
〈표 3-3〉 사하라 이남 국가를 제외한 기본모형 분석 결과	41
〈표 3-4〉 연도 고정 효과를 포함한 기본모형 분석 결과	42
〈표 3-5〉 사하라 이남 국가 제외 및 연도 고정 효과 포함 분석 결과	43
〈표 3-6〉 지역별 서브 샘플 분석 결과	44
〈표 3-7〉 유네스코 등재 유산 영향	45
〈표 4-1〉 인기 케이콘텐츠 영화 목록	54
〈표 4-2〉 인기 케이콘텐츠 티브이 시리즈 목록	55
〈표 4-3〉 기술 통계량	56
〈표 4-4〉 기본 모형: 영화 점수 및 티브이 점수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ct})$	67
〈표 4-5〉 기본 모형: 케이콘텐츠 1등 횟수, 5등 이내 횟수, 10등 이내 횟수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ct})$	68
〈표 4-6〉 기본 모형: 케이콘텐츠 누적 1등 횟수, 누적 5등 이내 횟수, 누적 10등 이내 횟수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ct})$	69
〈표 4-7〉 기본 모형: 오징어 게임 1등 횟수, 5등 이내 횟수, 10등 이내 횟수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ct})$	70
〈표 4-8〉 기본 모형: 오징어 게임 누적 1등 횟수, 누적 5등 이내 횟수, 누적 10등 이내 횟수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ct})$	71
〈표 4-9〉 합성이중차분법 처치 효과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ct})$	75
〈표 4-10〉 이원 고정 효과 모형 처치 효과: 1등 더미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ct})$	80

〈표 4-11〉 이원 고정 효과 모형 처치 효과: 5등 이내 더미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ct})$	81
〈표 4-12〉 이원 고정 효과 모형 처치 효과: 10등 이내 더미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ct})$	82

그림 목차

[그림 2-1] 국제수지의 분류	9
[그림 2-2] 경상수지의 분류	10
[그림 2-3] 우리나라의 일반여행수지, 일반여행수입, 일반여행지급 추이 (1993년 1분기-2023년 2분기)	15
[그림 2-4] 우리나라 성장률의 국제 비교	16
[그림 2-5] OECD국가들의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실질GDP	17
[그림 2-6] 원/달러 환율 추이	18
[그림 2-7] 한중일 국내총생산 대비 여행수지 추이	23
[그림 2-8]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여행수지 추이	24
[그림 4-1] 케이콘텐츠 인기도: 미국, 브라질	58
[그림 4-2] 케이콘텐츠 인기도: 일본, 대만	59
[그림 4-3] 케이콘텐츠 인기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60
[그림 4-4] 케이콘텐츠 인기도: 인도, 싱가포르	61
[그림 4-5] 케이콘텐츠 인기도: 영국, 호주	62
[그림 4-6] 케이콘텐츠 인기도: 프랑스, 독일	63
[그림 4-7] 케이콘텐츠 인기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64
[그림 4-8] 케이콘텐츠 인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65
[그림 4-9] 케이콘텐츠 인기의 동태적 효과: 1등 횟수(上), 5등 이내 횟수(中), 10등 이내 횟수(下)	73
[그림 4-11] 합성이중차분법: 1등 더미	76
[그림 4-12] 합성이중차분법: 5등 이내 더미	77
[그림 4-13] 합성이중차분법: 10등 이내 더미	78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올해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이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가시적인 회복 추세가 관찰되고 있지만,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에 비례하여 관광수지 적자폭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중앙일보, 2023). 동시에 한미 금리차 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상당한 흑자를 유지하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한편, 그러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행수지(travel trade balance)를 포함하는 서비스수지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그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실, 2022) 및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시로 수출 활성화 및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관광수지 변동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충분한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어진 외부적인 여건 아래에서 관광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될 것인지, 계속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어떠한 결과로 귀결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관광수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관광수지를 데이터로 정량 분석한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정책적인 시사점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실증분석은 크게 관광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관광수지 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평가 분석으로 각각 나누어 실시한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관광수입과 관광지출의 차로 정의되는 관광수지 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두 번째 분석에서는 관광수입의 개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방법

관광수지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경상수지와 서비스수지를 들 수 있다.¹⁾ 즉, 관광수지는 경상수지 및 서비스수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경상수지나 서비스수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수지 및 서비스수지를 가장 많이 연구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경제학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경제학적으로 경상수지를 분석하는 일반론적인 방법론에 준하여 관광수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상술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의 연구 방법을 분류하자면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이다. 특히 계량적 방법론으로 관광수지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가 문헌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양한 문헌 가운데 경상수지 등과 관련한 경제이론 및 실증분석 기법에서의 타당성(validity)을 확보한 문헌 위주로 검토를 실시한다.²⁾ 타당성이 확보된 연구 결과에서 도출되는 공통분모나 이견(異見) 등을 실증분석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관광수지의 변화 설명에 적절한 모형을 설정한다.

두 번째 연구 방법은 실증 분석이다. 우리나라 관광수지의 추이, 과거 변동과의(또는 타 국가와의) 비교, 회귀분석을 사용한 관광수지의 결정요인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광수지의 추이나 다른 나라와의 비교 등은 적절한 도표와 함께 상황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회귀분석 파트는 문헌 연구를 통해 선택한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회귀분석 모형 수립(model specification) 및 결과 해석을 제시한다. 경상수지가 국가 단위의 거래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국가 수준의 패널 데이터(country-level panel data)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1) 후술하겠지만, 관광수지는 여행수지에서 유학 서비스수지를 제외한 일반여행수지에 해당한다.

2) 계량적 연구에서는 잘못된 이론 및 분석 기법을 적용한 연구를 직접 인용하여 비평하는 문헌 비평보다는 인용을 하지 않는 간접적인 방식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2. 연구 구성

서론을 제외한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관광수지의 개념 및 동향에 대해서 다룬다. 앞서 짧게나마 언급한 것처럼, 관광수지는 경상수지 및 서비스수지의 하위 개념이다. 따라서 그 작성 방식이 국제기구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는 관광수지와 상위 개념 사이의 관계 및 작성 방식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추이 및 국제적인 비교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관광수지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³⁾ 다수의 경제학 문헌은 서비스수지보다 상위의 개념인 경상수지에 큰 관심이 있고 다수의 관광학 문헌은 국제 관광객 수(international tourists) 또는 관광수입(international tourism receipt)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교집합인 관광수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⁴⁾ 따라서 여기서는 관광수지 영향요인을 직접 분석하여 우리나라 관광수지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적용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관광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데이터에서 흑자인 구간은 모두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 자칫 경제적 위기가 수반하여야 관광수지 흑자가 가능하다는 그릇된 분석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수지가 흑자·적자인 기간 및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관광수지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제4장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소위 케이콘텐츠의 관광수지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잦은 병화(兵火)로 인하여 현존하는 고대의 문화유적이 적은 편이다.⁵⁾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꼽히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안동 봉정사 극락전도 추정 연대가 고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여몽 항쟁기에 대부분의 목조 문화재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⁶⁾ 국토가 협소하

3) 단 여기서 분석하는 관광수지 영향요인은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영향요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가의 관광수지 영향요인이다. 자세한 이유는 후술하도록 한다.

4) 관광수입을 관광수출(tourism export)이라 부르기도 한다.

5) 또한 로마 이후로 대형 건축물은 석축을 기본으로 하던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이 주로 목조 건축인 것도 현존하는 문화재의 부족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석재는 화강암이 대부분으로 고대의 기술로 석축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6) 물론 그 이전에도 백제와 당나라의 전쟁, 고려와 당나라의 전쟁으로 신라를 제외한 삼국의 목조 문화재는 크게 소실된 상태였다. 여몽 항쟁기 이후로는 큰 사례만 꼽아도 흥건적, 왜구, 임진란, 병자란 등에 최근의 육이오까지 병화가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에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고 남아 있는 고대의 문화재들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 콘텐츠의 국제적인 유행은 우리 관광수지 개선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관광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아웃바운드 추이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조아라·김형중, 2019),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민의 해외여행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방한 외래객의 증대에 비해서 국민 출국객 감소의 정책적 유도는 불가피하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관광수지의 적극적 개선은 방한 외래객의 증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 상품인 케이콘텐츠가 실제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단순한 추론 수준을 넘어서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어진 예산으로 문화 산업과 관광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보고서의 전체 연구 결과를 짧게 요약하고 분석 결과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삼국 시대의 목조 건축물이 보존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안타까운 점이다.

7) 또한 제조업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산업 간 융복합이 서비스 산업에서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장

관광수지의 개념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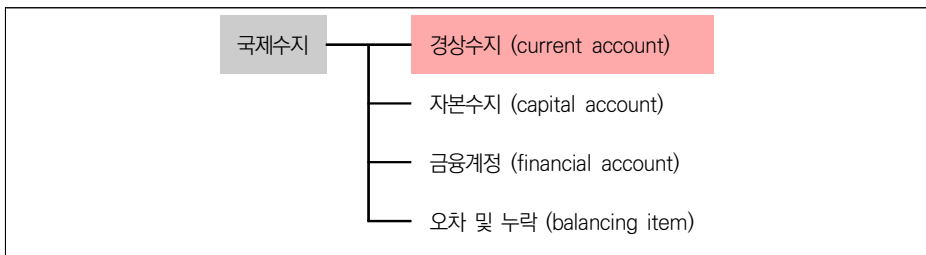
제1절 관광수지의 개념

1. 국제수지와 관광수지

관광수지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서 누린 여행 서비스에 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서 누린 여행 서비스를 차감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광수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수지(國際收支; balance of payments)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관광수지라고 부르는 개념은 국제수지의 하위에 속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국제수지는 주로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09). 이는 국제통화기금의 업무가 국제수지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다.⁸⁾ 국제수지는 특정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개인을 거주자로 볼 것인지, 어떠한 거래를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동일한 정의에서 상이한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실무적인 매뉴얼이 존재한다.⁹⁾

[그림 2-1] 국제수지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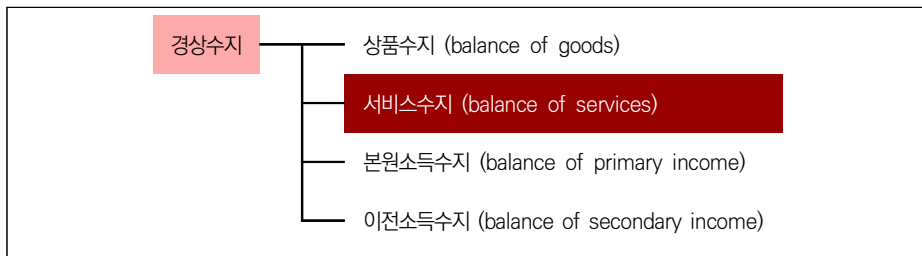
8) 국제통화기금의 주요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제통화 문제의 협력 촉진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나 유엔의 국민계정체계(United Nations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역시 국제통화기금과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9) 예를 들어, 유학생, 환자 등은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비거주자로 의제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국제통화기금의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로 가장 최근의 매뉴얼이 6판이기 때문에 ‘BPM6’라는 약칭으로 종종 불리기도 한다(IMF, 2009).¹⁰⁾ 이에 따르면 국제수지는 [그림 2-1]에서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네 요소의 합은 항상 산술적으로 영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¹¹⁾ 그리고 여기서 경상수지는 다시 [그림 2-2]와 같이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를 필두로 운송, 건설, 보험, 지식재산권, 연구개발에서 개인, 문화 여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서비스 거래를 망라하여 포함한다. 최근의 여행수지는 유학연수수지와 일반여행수지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일반여행수지를 관광수지로 부르고 있다.¹²⁾

[그림 2-2] 경상수지의 분류



따라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일반여행수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한국관광수지 수치는 완전히 동일하다.¹³⁾ 다음 소절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여행수지 작성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0) 최근에는 제7판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11) 참고로 상품수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무역수지(balance of trade)가 별도로 존재한다. 두 개념은 매우 밀접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데, 상품수지는 BPM6의 기준에 따르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반면에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에 의한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BPM6 기준의 수출과 수입에는 재수출입, 건본품·판촉물 등은 제외하고 밀수출 등은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무역수지는 상품수지와 비교하면 속보성은 높으나 외환 관련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등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12) 관광에서는 계절성 자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 변수와는 달리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휴가철’과 같은 용어가 관광에서 계절성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적절한 예시가 될 것이다.

13) 사실 학술적인 개념에서의 관광수지와 여행수지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본문에 기술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작성하는 관광수지와 (일반)여행수지가 동일한 관계로 이하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2. BMP6 여행수지

국제통화기금 여행수지 작성기준은 BMP6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BMP6의 제10장 재화 및 서비스 계정(Goods and Services Account)에서 기술하고 있다. <표 2-1>에서는 해당 장의 구성을 간략히 요약한다. BMP6의 여행수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췌(拔萃)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⁴⁾

<표 2-1> BMP6 제10장 구성

Goods and Services Account
⋮
B. Goods
C. Services
a. Manufacturing services on physical inputs owned by others
b.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n.i.e.
c. Transport
d. Travel
• Business travel
• Personal travel
• Other issues related to travel
⋮

여행 대변(travel credits)은 비거주자(nonresidents)가 특정한 경제를 방문 중에 해당 경제에서 자가 사용(own use) 또는 선물용으로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goods and services)를 포괄한다. 반대로 여행 차변(travel debits)은 거주자가 다른 경제를 방문하는 동안 자가 사용 혹은 선물용으로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를 포괄한다. 즉, 우리나라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는 여행 대변에,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경을 넘어서 구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는 여행 차변에 기재된다.

동 재화 및 서비스는 본인이 구매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당사자(another party on their behalf)가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장(business travel)은 고용주에 의해 지불되거나 보상될(reimbursed) 수 있다. 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는 정부에 의해

14) 이하에서 여행은 정확하게는 여행 계정(travel account)을 지칭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출장, 개인 여행 등도 마찬가지이다.

지불될 수 있으며, 의료비(health costs)는 정부 또는 보험사에 의해 지불되거나 보상될 수 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등록금 및 생활비 등 생산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또한 이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여행은 특정한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의 묶음(an assortment of goods and services)을 포함하는 거래자 기반의 (회계) 항목(component)이다. 여행의 경우, 소비자는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를 위해 다른 영토(another territory)로 이동한다. 상술한 이유로, 여행은 '재화 및 서비스 분류(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에서는 서비스로 식별되지 않는다. 여행 중에 여행객에게 제공되는 우편 서비스(postal services), 통신 서비스(telecommunications), 현지 운송(local transport) 서비스, 장비 대여(hire of equipment), 도박(gambling)과 같은 다른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도 여행에 포함된다.¹⁵⁾

거주하는 영토 외에서 공부하거나 치료받는 개인이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는 여행에 포함된다. 국경 근로자, 계절 근로자, 기타 단기 월경(other short term cross-border) 근로자가 그들이 고용된 경제에서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도 여행에 포함된다. 외교관(diplomats), 공관 직원(consular staff), 군인(military personnel) 등과 그 권속(眷屬; dependents)이 그들이 배치된 영토에서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는 정부의 기타 재화 및 서비스에 포함된다(그러나 현지 고용 직원과 그 권속은 제외한다).

전매 재화(轉賣 財貨; goods for resale)는 여행 (계정)에서 제외하며, 잡화(雜貨; general merchandise)에 포함한다. 관세 기준을 초과하여 관세 데이터에 포함되는 (보석과 같은) 귀중품, (자동차, 전자제품 같은) 소비자 내구재, 자기 사용 또는 선물 목적의 기타 소비자 구매는 잡화에 포함한다. 잡화 데이터(general merchandise data)에 포함되지 않은 (예를 들어, 별장에 보관된 현지 구매 재화 등) 귀중품 및 소비자 내구재는 반드시 여행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행은 현지 운송(local transport)은 포함하지만 국제 운송(international transport)은 제외한다.¹⁶⁾

15) 도박(賭博)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박이 불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복권, 경마, 경륜, 경정,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합법 도박이다. 마찬가지로 해외 현지에서도 합법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도박들이 존재할 수 있다.

16) 국제 운송은 운송 수지에 포함된다. 단, 현지 운송비와 같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영토 내에서 제공하거나 국제 운송과는 별도로 제공 또는 구매하는 승객 서비스(passenger services)는 여행에 포함된다.

가. 출장

출장(business travel)은 여행의 주요 목적이 업무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승무원의 정차 또는 경유 지출, 공무원의 공식 여비, 국제기구 직원의 공식 업무비, 고용주를 대신하여 여행하는 직원의 지출, 자영업자가 업무 목적으로 여행하는 비거주자의 지출, 그리고 그들이 고용된 경제에 거주하지 않는 계절, 국경 및 기타 단기 근로자의 지출 등이 있다. 업무 활동(business activities)에는 생산 또는 설치 작업, 판촉 활동(sales campaign), 시장 탐색(market exploration), 상업적 협상(commercial negotiations), 임무(missions), 콘퍼런스, 컨벤션, 기타 회의 또는 다른 경제에 소재한 기업(an enterprise resident in another economy)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기타 업무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 출장은 여행의 주요 목적이 업무인 사람들이 (출장자가 고용주에게 보상받는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그들이 대표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체결한 매출 또는 구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개인 여행

개인 여행(personal travel)은 출장 외의 목적으로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구입한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휴가, 오락 및 문화 활동 참여, 친지 방문, (종교적) 순례(pilgrimage), 교육 및 건강 관련 목적 등이 있다. 개인 여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⁷⁾

- 건강 관련(health-related): 의료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구매한 의료 서비스 (medical services), 기타 건강 관리, 음식, 숙박, 현지 운송 등
- 교육 관련(education-related): 비거주 학생이 구매한 수업료, 음식, 숙박, 현지 운송, 보건 서비스(health services) 등
- 기타 개인 여행(all other personal travel): 이 항목은 건강 또는 교육 목적으로 여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보건 지출(health expenditure)을 포함

17) 개인 여행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 및 교육 서비스는 기타 개인·문화 및 오락 서비스(other personal,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s)에 포함된다.

다. 기타 여행 관련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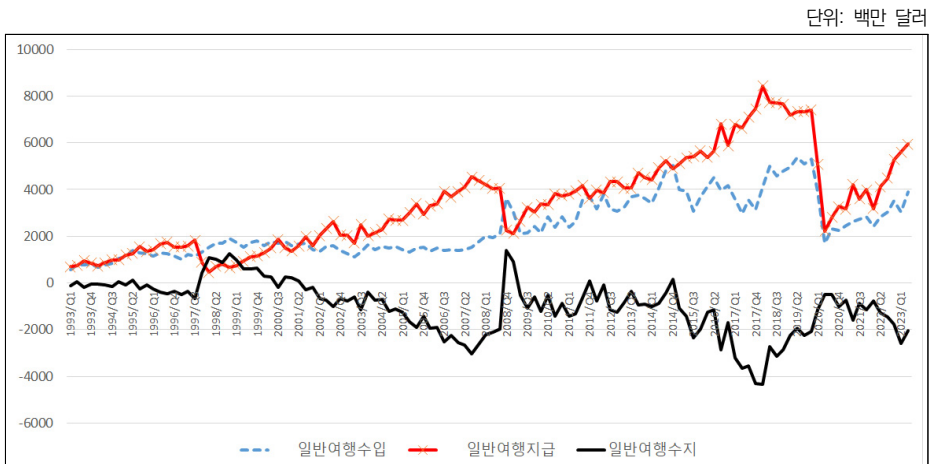
여행은 거주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기간의 체류도 포함한다. 회계기준에 따라, 방문 중에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는 사전 또는 사후에 지불되었더라도 여행에 포함된다. 재화 및 서비스는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이 직접 구매하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당사자가 구매하거나, (무료 숙식과 같이) 대가 없이 제공되거나, 또는 (부동산 소유 및 시간 공유 숙박의 사례와 같이) 자가 계정에서 생산될 수 있다.

여행 에이전트가 고객과 같은 경제 내의 거주자인 경우 마진이나 수수료는 거주자 사이의 거래이며, 에이전트가 받을 마진이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다른 경제에 거주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할 순액이 여행에 포함된다. 또 다른 경우는, 비거주 서비스 제공자(the nonresident provider of the services)가 거주 에이전트(resident agent)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총액은 고객이 비거주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는) 여행에 포함된다. 승객과 다른 경제에 거주하는 운영자(operator)가 공급하는 크루즈 요금은 (승객 운송이 아니라) 여행에 포함된다.

제2절 우리나라 관광수지의 동향

1989년 이전 우리나라는 여권 발급이 크게 제한되어, 해외여행은 해외 출장이나 유학 등 일부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한국은행의 경상수지 통계에서 여행수지는 유학연수수지와 일반여행수지로 분류되는데, 본 절에서는 일반여행수지의 분류가 시작되는 1993년 1분기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관광수지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3] 우리나라의 일반여행수지, 일반여행수입, 일반여행지급 추이(1993년 1분기-2023년 2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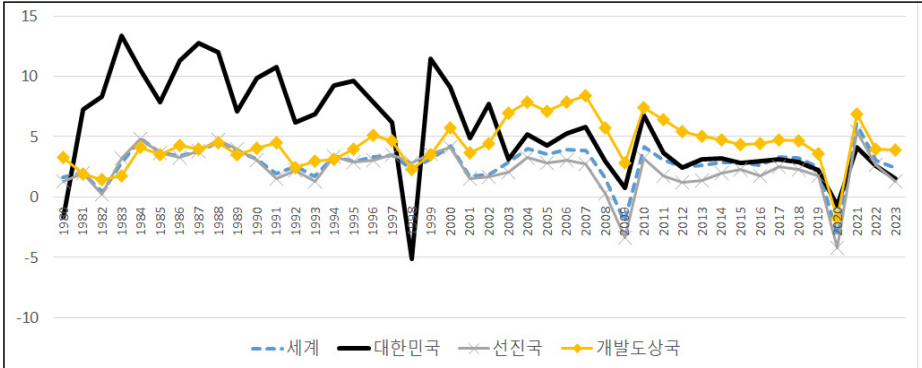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그림 2-3]은 1993년 1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우리나라의 일반여행수입, 일반여행지급, 일반여행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예외적인 기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 지출로 발생하는 ‘일반여행수입’과 내국인의 해외여행 지출로 발생하는 ‘일반여행지급’은 코로나 사태로 해외여행이 크게 위축되었던 2020년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일반여

행지급의 증가 속도가 일반여행수입의 증가 속도보다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국내 관광자원의 개발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국내관광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해외여행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그림 2-4] 우리나라 성장률의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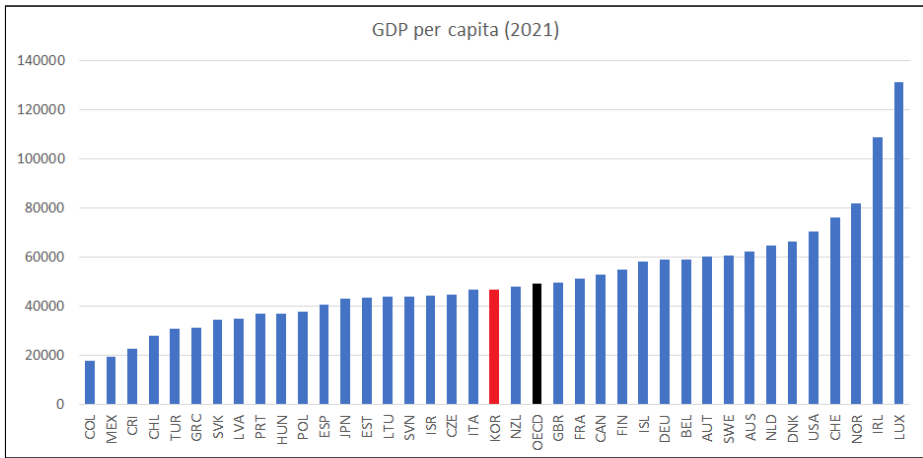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3년은 전망치).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지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한 기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 상승률이 다른 나라의 성장률보다 평균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여행은 경제학적으로 정상재(normal good)로 소득 상승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다(e.g., Blunk, Clark, and McGibany, 2006; Gruen, 1980; Tsekeris, 2009). [그림 2-4]는 우리나라와 세계 평균, 선진국 평균, 개발도상국 평균 성장률을 비교하고 있는데,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만을 제외하고 한국의 성장률은 세계평균, 선진국 평균을 넘어서 개발도상국 평균 수준도 크게 상회하였다. 우리나라의 빠르게 성장한 소득 수준은 해외여행 수요를 빠르게 증가시켰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해외여행 지출이 외국인들의 국내여행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한 주요 원인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개발도상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비교 대상인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 평균 수준까지 낮아졌다. [그림 2-5]는 OECD 회원국들의 2021년 구매력평가 기준 실질 GDP를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실질 소득수준은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회원국들 평균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상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성장률의 저하에 따라 우리나라 해외여행의 증가율은 둔화할 수 있으나, 고소득 선진국 수준의 해외여행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5] OECD국가들의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실질GDP

단위: 미국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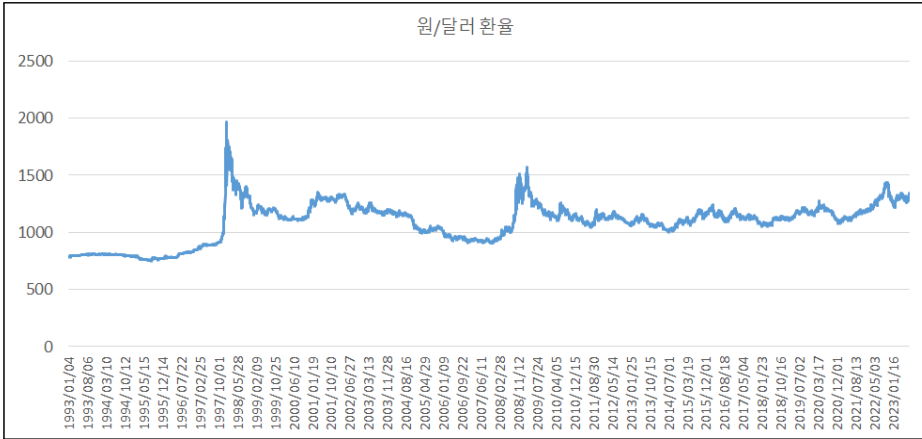


자료: OECD 데이터베이스.

[그림 2-3]에서 1993년 이후 유일하게 규모가 있는 일반여행수지 흑자를 기록한 기간은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이다. 두 경제위기 시기에 일반여행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데 반해 일반여행지급이 급감하면서 여행수지의 흑자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시기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혹은 저성장을 하면서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개인 여행 수요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둘째, 두 위기 기간에는 원화 환율이 급격히 절하되어, 해외여행에서 고려되는 달러화 기준 여행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 해당 기간의 소득 감소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림 2-5]는 원/달러 환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전 800원 선이었던 환율은 외환위기 국면에서 2,000원 가까이 치솟기도 하였다. 해외여행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는 2.5배 증가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900원 선이었던 환율이 위기 국면에서 1,600원 가까이 상승하였다. 반면 외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할 때의 달러 기준 비용은 그만큼 저렴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이 늘어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듯, 해외여행을 위한 국내 소득 감소와 환율 절하로 인한 비용 증가, 외국인의 국내 관광에 대한 가격경쟁력 증가 등이 동시에 발생하며, 해당 시기 여행수지 흑자가 나타난 것이다. 셋째, 두 위기 기간 중에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국가 차원의 위기에

서 개인의 해외여행 자제는 해외여행 지출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여행수지 흑자를 본 시기는 국민의 복지와 여가의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6]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달리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는 앞의 두 위기에서처럼 경제성장률을 크게 저해하였으나 일반여행수지 흑자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과거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서보다 해외여행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외국인의 국내 관광 역시 비슷한 폭으로 감소하여 소폭의 경상수지 적자가 유지되었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관광지 여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앞의 두 위기와 달리 환율이 크게 절하되지 않으면서 특별히 국내 관광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여행수지는 우리나라 성장률의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의 하향, 다소 절하된 환율로 인한 국내 관광의 가격경쟁력 상승과 해외여행 비용 증가 등으로 적자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케이콘텐츠의 열풍으로 인하여 해외관광객들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는 것도 적자폭 감소 전망의 요인 중 하나이다. 반면 지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국제행이 중단되어 유예되었던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경우 당분간 여행수지 적자폭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3절 관광수지 국제 비교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동향에 이어 다른 나라와 관광수지를 비교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상수지(經常收支; current account balance)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경제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e.g., Chinn and Prasad, 2003; Gruber and Kamin, 2007), 그 하위 수준의 수지들을 결정하는 요인은 몇 개의 연구를 제외하면 선행 연구가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e.g., Cheng, Kim, and Thompson, 2013; Dogru, Isik, and Sirakaya-Turk, 2019). 따라서 관광수지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학계의 충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¹⁸⁾ 관광수지의 결정요인은 다음 장에서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이터에서 관광수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¹⁹⁾

〈표 2-2〉와 〈표 2-3〉 2001년도와 2019년도의 여행계정의 대변(credit), 차변(debit) 및 수지를 보고한다. 모든 국가들을 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G7), 이제는 선진국에 도달한 아시아 신흥 공업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국제관광을 대체하는 국내관광 활성화가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 중진국(러시아, 중국, 인도)만 따로 골라 보고한다. 2001년도와 2019년도를 선택한 이유는 각기 아시아 외환 위기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인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수치를 사용하는 비교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는 여행수지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18) 이것은 관광학계, 경제학계 모두 마찬가지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학계는 보다 상위 개념의 수지에 더 관심이 있고 관광학계는 수지의 개념보다 관광객의 수나 관광객의 지출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인다. 물론 관광객의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지만(e.g., Vanhove, 2018), 인바운드 수입과 아웃바운드 지출 차이의 움직임, 즉 관광수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배경이나 명확한 의견의 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19) 단, 관광수지와 동일한 일반여행수지의 경우에는 국가별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대리변수로 여행수지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표 2-2〉 주요국의 2001년도 여행수지 (단위: 미화 백만 불)

나라 이름	Credit	Debit	Balance
미국 (영미권 및 G7)	86,408	60,525	25,883
캐나다 (영미권 및 G7)	10,623	11,867	-1,244
영국 (영미권 및 G7)	21,712	42,220	-20,508
독일 (유럽권 및 G7)	18,036	51,824	-33,788
프랑스 (유럽권 및 G7)	32,188	22,611	9,577
이탈리아 (유럽권 및 G7)	25,828	14,798	11,030
일본 (아시아권 및 G7)	3,306	26,531	-23,225
한국 (아시아권 선진국)	6,382	7,617	-1,235
대만 (아시아권 선진국)	-	-	-3,300
홍콩 (아시아권 선진국)	5,945	12,317	-6,372
싱가포르 (아시아권 선진국)	4,639	6,610	-1,971
러시아 (유라시아 중진국)	3,572	9,093	-5,521
중국 (아시아권 중진국)	17,792	13,909	3,883
인도 (아시아권 중진국)	3,198	3,006	192

자료: IMF Data, Balance of Payments Standard Presentation by Indicator. 수치는 반올림하였다. 대만 자료는 한국은행 (2003)에서 재인용 하였다.

〈표 2-3〉 주요국의 2019년도 여행수지 (단위: 미화 백만 불)

나라 이름	Credit	Debit	Balance
미국 (영미권 및 G7)	198,983	131,992	66,991
캐나다 (영미권 및 G7)	20,822	35,342	-14,520
영국 (영미권 및 G7)	58,430	85,948	-27,518
독일 (유럽권 및 G7)	41,779	93,097	-51,318
프랑스 (유럽권 및 G7)	63,424	50,507	12,917
이탈리아 (유럽권 및 G7)	49,521	30,307	19,214
일본 (아시아권 및 G7)	46,052	21,278	24,774
한국 (아시아권 선진국)	20,867	32,739	-11,872
대만 (아시아권 선진국)	-	-	-12,273
홍콩 (아시아권 선진국)	28,904	26,880	2,024
싱가포르 (아시아권 선진국)	20,300	27,048	-6,748
러시아 (유라시아 중진국)	10,961	36,162	-25,201
중국 (아시아권 중진국)	35,832	254,621	-218,789
인도 (아시아권 중진국)	30,720	22,915	7,805

자료: IMF Data, Balance of Payments Standard Presentation by Indicator. 수치는 반올림하였다. 대만 자료는 대만교 통부관광국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수치에 2019년 말일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NTD[445.6-817.5]×0.033).

우리나라 역시 아시아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여행수지가 흑자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아시아 외환 위기의 여파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판단되는 2001년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이전인 2019년도의 여행수지를 비교하도록 한다.

〈표 2-2〉에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여행수지가 흑자인 국가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로 나타났다. 자국통화가 기축통화인 동시에 할리우드, 브로드웨이 등 막강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역시 오랜 역사와 함께 대표적인 문화국가로 꼽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관광수지가 흑자라는 사실은 크게 놀랍지 않을 것이다. 2001년도에 일본은 매우 큰 수준의 관광수지 적자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브로드웨이와 함께 뮤지컬계의 쌍두마차인 웨스트엔드를 보유하고 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자국의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놀라게 하였던 영국도 여행수지가 적자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한편 과거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또는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렸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모두 관광수지가 적자였으나 중국은 현재와는 달리 여행수지가 흑자였다.

〈표 2-3〉은 2019년도의 여행수지를 보고하고 있다. 여행수지의 방향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지된다. 2001년도에 여행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2019년도에도 대부분 적자이고, 흑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외는 일본, 홍콩, 중국인데 이들 나라는 모두 동아시아에 있으며 중국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은 여행수지 흑자국에서 막대한 적자국으로 변모하였으며, 일본은 반대로 흑자국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여행수지는 악화된 반면에 다수의 중국인이 인접국가로 여행하면서 인근 지역의 여행수지는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홍콩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수혜를 가장 쉽고 또 가장 많이 보는 지역으로 여행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은 중국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대한민국과 이웃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말미암아 타국과 비교하여 구매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인의 아웃바운드는 상당히 정체된 반면에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중국인은 크게 증가하면서 역시 여행수지 흑자국으로 변모한 것이다. 아웃바운드 증가 이면에 소득의 증가가 있음은 본 연구원의 발간물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다(김형중, 2019; 조아라·김형중, 2019; 이원희·김형중·강지수, 2021; 김형중, 2023).

〈표 2-4〉 주요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및 여행수지 변화

나라 이름	2001년			2019년			변화		
	실질GDP	환율	여행수지	실질GDP	환율	여행수지	(%)	(△)	(△)
미국	48,727	0.896	25,883	60,698	1.119	66,991	24.57%	0.223	41,108
캐나다	38,185	1.549	-1,244	45,113	1.326	-14,520	18.14%	-0.223	-13,276
영국	39,879	0.695	-20,508	47,492	0.783	-27,518	19.09%	0.088	-7,010
독일	35,011	1.117	-33,788	43,245	0.893	-51,318	23.52%	-0.224	-17,530
프랑스	34,010	1.117	9,577	38,832	0.893	12,917	14.18%	-0.224	3,340
이탈리아	32,964	1.117	11,030	32,114	0.893	19,214	-2.58%	-0.224	8,184
일본	31,476	121.53	-23,225	36,044	109.01	24,774	14.51%	-12.52	47,999
한국	17,681	1.291	-1,235	3,1640	1.165	-11,872	78.95%	-0.126	-10,637
대만			-3,300			-12,273			-8,973
홍콩	26,885	7.799	-6,372	44,195	7.836	2,024	64.39%	0.037	8,396
싱가포르	33,598	1.792	-1,971	61,386	1.364	-6,748	82.71%	-0.428	-4,777
러시아	5,618	29.169	-5,521	9,958	64.738	-25,201	77.25%	35.569	-19,680
중국	2,360	8.277	3,883	10,156	6.908	-218,789	330.3%	-1.369	-222,672
인도	778	47.186	192	1,944	70.420	7,805	149.9%	23.234	7,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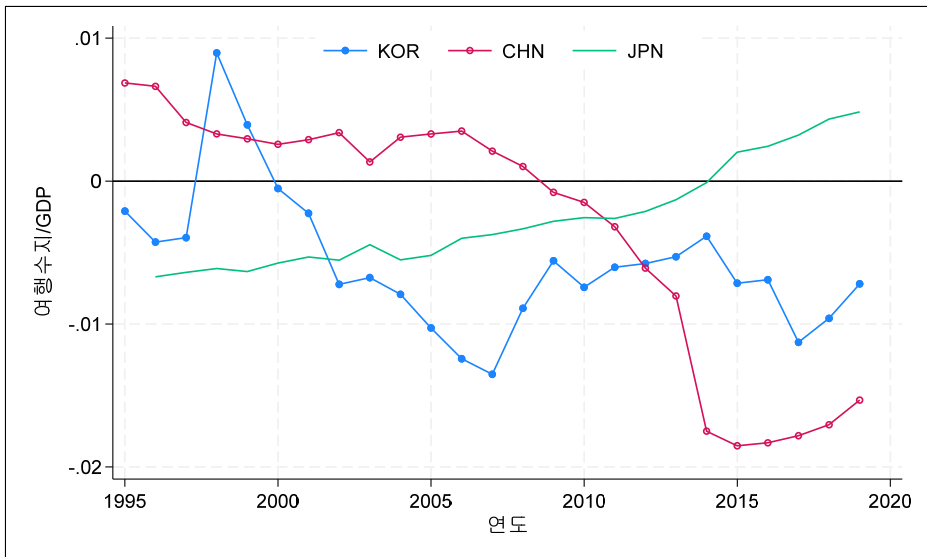
자료: IMF, Balance of Payments Standard Presentation,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주석: 1인당 실질 GDP는 2,000년 불변미화 기준, 환율은 미국은 유로환율, 그 외의 국가는 모두 대미환율이다. 한국의 환율 단위는 원대달러가 아닌 천원대달러이다. %는 증감률을, △는 차이를 의미한다. 자료의 한계로 대만의 실질 GDP와 환율은 표에서 제외한다.

경제변수와 여행수지를 같이 비교하면 상술한 점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표 2-4〉는 2001년도와 2019년도의 여행수지 변화를 경제변수의 변화와 함께 비교한다. 2001-2019년 동안 여행수지가 크게 악화된 중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으로 산출하면 약 330%에 달하는 반면에 일본의 성장은 14.51%에 불과하다. 동일한 기간 한국은 약 79% 성장하였다. 또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에 비해서 환율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작고 전체적인 변화의 설명은 어렵다. 국내 통화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여행적자가 심화되기도 하며 그 역도 관찰되기 때문이다. 또한 2001년에는 구매력이 유사한 수준인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모두 여행수지 흑자국이기는 하지만 2019년 이탈리아가 더 많은 여행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이탈리아의 실질소득 감소가 아웃바운드 증가를 상당 부분 억제하여 나타난 차이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홍콩과 거의 유사한 조건을 구비한 대만의 여행수지는 악화되었다.²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여행수지는 국가적 특수성과 실질소득 증가로 인한 아웃바운드 증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행수지의 방향성 전환은 관찰하기 어려우며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행수지 적자에서 흑자로의 전환은 해당 국가의 저성장과 중국인 아웃바운드의 급격한 증가가 결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7] 한중일 국내총생산 대비 여행수지 추이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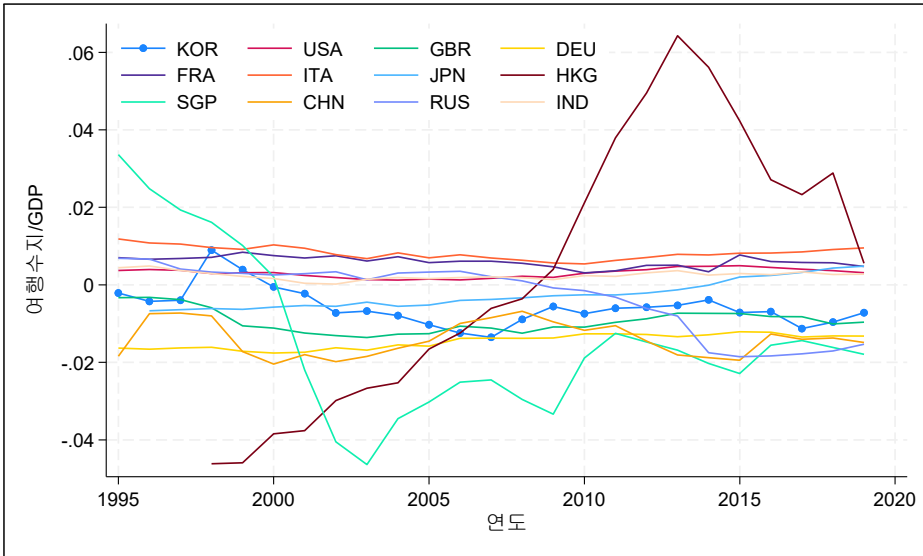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관광수지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자나 흑자 자체보다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지는지가 정책적으로는 더욱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7]은 동아시아 3개국인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국내총생산 대비 여행수지 추이를 보여 준다. 수지는 다른 경제적 변수와 달리 상황에 따라서 부호가 변화하기 때문에 증감률로 변환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과 비교하여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림 2-7]은 동일한 방법을 여행수지에도 적용한 것이다. 수지는 명목가치로 측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상의 증감만

20) 홍콩과 대만은 대륙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문화적·유전적 유사성 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은 대륙과 교량으로 이어진 반면 대만은 그렇지 않고, 홍콩은 중국의 정치체계에 완전 편입된 반면에 대만은 독자적인 정치체계를 유지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경제의 규모와 비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중일 삼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여행수지비의 추이는 서로 크게 상반되어 흥미롭다. 일본은 여행수지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중국은 여행수지비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편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위 그림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여행수지가 가장 악화되었던 시기는 최근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이였다. 최근의 추이는 우리의 경제 규모 대비 여행수지가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2-8]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여행수지 추이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또한 동아시아 삼국의 여행수지비는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8]은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여행수지의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2-7]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커 보였던 한국, 중국, 일본의 여행수지비 추이는 [그림 2-8]에서는 그 변화가 미미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의 여행수지가 우려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악화하는 상황은 아니며, 절대적인 규모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관광수지의 개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관광수지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관광수지는 국제수지의 일반여행수지를 차용한 개념이다. 따라서 관광수지는 경상수지의 서비스수지 하위에 속한다. 국제금융기구는 여행수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출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의 간편 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현행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IMF, 2009).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간편 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관광수지에서 중국인의 지출이 불충분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개념적으로는 한국에서 중국인이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소비하더라도 관광지출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간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래를 재화의 거래와 같은 수준으로 국제수지에 반영하기에는 기준의 부재로 인한 현실적인 한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²¹⁾ 국제통화기금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국제수지 작성 기준을 개선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지만, 간편 결제 시스템 등을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데는 다소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Financial Payments System Task Team, 2022; IMF, n.d.).²²⁾

또한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로 우리나라의 관광수지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적자라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관광수지가 흑자인 기간은 모두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었으며, 경제 위기로 인한 민간 소비의 위축과 원화 가치의 하락이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감소에 영향을 주어 관광수지가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확고하게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점차 다

21) 알리페이와 같은 충전식 간편 결제 시스템은 중국에서 미리 충전하고 한국에서 소비할 수 있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이러한 결제를 국제수지 작성 기준에 따라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순쉬운 작업이 아니다. 다양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도 통계 작성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22)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하는 BMP7의 예상 발표 시기는 2025년 3월이다(IMF, n.d.).

른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의 아웃바운드 증가가 과거에 비해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국제관광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여파로 당분간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할 개연성도 상존한다.

여행수지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적자폭이 지금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교 대상인 국가 가운데 여행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사례로 일본과 홍콩을 들 수 있다. 동일한 기간 중국의 여행수지는 흑자에서 막대한 적자로 전환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도 적자에서 흑자로의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기여로 적자폭이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암시한다. 또한 국내총생산 대비 여행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 가장 낮았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는 개선되는 추이도 보여 주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행수지비 변화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급격한 수준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관광수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개선에 대한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한다.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거시적 분석: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관광수지의 변화는 경제적인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²³⁾ 앞에서는 이를 그림과 표를 사용하여 목측하는 수준으로 검토하는 데 머물렀다면, 여기서는 국가 수준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관광수지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관광수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국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관광수지가 대부분의 기간 적자였다는 사실이 존재한다.²⁴⁾ 따라서 우리나라의 데이터로만 관광수지의 영향요인을 분석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경제 성장이 관광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분석될 개연성이 상당함을 사전에 짐작할 수 있으나, 상술한 희소한 흑자 기간 등 데이터의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한 실증분석 결과는 과학적인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한다.²⁵⁾ 따라서 관광수지 흑자와 적자의 비율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기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공존하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경제적인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관광수지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또 다른 한계가 있다.²⁶⁾ 따라서 본 장의 분석은 관광수지보다 상위의 개념인 경상수지를

23) 경제 위기 시의 우리나라 여행수지 흑자나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여행수지 흑자에서 적자로의 전환 등이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24)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의 데이터는 인위적 개입으로 인해 경제적인 변수들을 고려하는 결정요인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25) 우연에 의해 두 변수가 유사하게 움직인 것인지, 일반적으로 소득의 증가가 관광수지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또한 희소한 흑자 기간은 학술적으로 희귀 사건(rare events)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분석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다.

26) 관광수지보다 상위의 개념인 서비스수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조차 매우 제한적이다.

분석한 연구들을 주로 참조하였음을 미리 일러둔다(e.g., Chinn and Prasad, 2003; Chinn and Ito, 2007; Gruber and Kamin, 2007).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검토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 절에서, 실증분석 결과는 제3절에서 각각 제시하도록 한다.

제2절 관광수지 영향요인 및 모형 설정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수지는 국제수지 중 경상수지의 한 항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관광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상수지의 일반적 특성과 다른 관광수지의 특성이 있을 수 있다. 먼저 Chinn and Prasad(2003)는 경상수지의 중기적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1971-1995년 동안 89개국에 걸친 연간 패널 자료를 5년씩 평균한 자료를 이용하여 중기적인 경상수지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는데, 정부의 재정수지(government budget balances)와 순해외자산(net foreign assets)의 초기 조건이 모든 표본에 걸친 일관적인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더해 18개의 선진국과 71개의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부표본(subsample) 분석을 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실증분석 모형에 대해 일관적인 결정요인을 찾기 힘들었지만, 개도국에서는 정부 재정수지와 순해외자산에 더해 금융 발전(financial deepening)과 무역 개방도(trade openness)도 일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Chinn and Prasad(2003)의 결과는 경제이론의 예측과 일치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거시경제의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경상수지는 한 국가의 국내 총저축과 총투자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수지는 국내 총저축을 통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²⁷⁾ 따라서 정부의 재정수지 흑자는 경상수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재정수지 적자는 경상수지를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경상수지는 순수출과 순수취 요소 소득(net factor payment)의 합이라고 할 수 있

27) 국민소득 항등식은 $Y = C + I + G + NX$ 로 나타낼 수 있는데, Y 는 국내총소득(GDP), C 는 민간소비, I 는 투자, G 는 정부소비, NX 는 순수출이다. 순수출은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등식의 NX 는 경상수지의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기 식은 T 를 정부조세수입이라고 할 때, $(Y - C - T) + (T - G) - I = NX$ 로 변형할 수 있다. 좌변의 첫 번째 항은 민간저축, 두 번째 항은 정부저축을 의미하며,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을 국내 총저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수지가 하락하면 순수출 적자,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된다.

는데, 순해외자산(net foreign assets)이 많을수록 그로 인한 이자 등의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순해외자산과 경상수지는 양의 관계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금융 발전(financial deepening)이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국내 총저축과 관련이 있다. 금융 발전이 심화될수록 민간의 저축률이 높아져서, 경상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무역 개방도(trade openness)가 음의 계수로 관찰된 것은, 개발 과정에서의 원자재, 자본재의 수입으로 무역 개방도가 높을수록 무역수지 적자를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광수지 역시 경상수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장의 실증분석 모형은 기본적으로 Chinn and Prasad(2003)에서 고려된 변수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관광서비스 국제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상수지 차원에서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국내 생산된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하면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관광수지에는 정부의 소비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광수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정부수지의 고려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또한 중기적인 거시경제적 시각에서 가격변수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연간 자료의 빈도(frequency)에서 관광수지의 결정요인을 고려할 때는 재정수지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적절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관광수지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문헌은 매우 드물지만, 해외 관광객의 국내 관광수요(inbound)와 국내 관광객의 해외 관광수요(outbound)에 관한 거시경제적 실증 분석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결국 관광수지는 관광 수입과 관광 지출의 차이이기 때문에, 국제관광수요의 상대적 결정요인이 관광수지의 결정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적 시각에서 상품의 수요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구매자의 소득과 제품의 가격이다. 해외관광이 정상재라는 가정을 하면 인바운드 관광수요의 경우에는 타국의 소득이 높을수록, 아웃바운드 관광수요의 경우에는 자국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요는 높아지게 된다. Martins et al.(2017)은 1995-2012년 동안의 218개국의 인바운드 관광수요의 거시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세계 평균 1인당 GDP를 제어하였다. 반면 Chang and Lai(2011)는 2000-2005년 동안의 36개국의 쌍방(bilateral) 관광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관광객 국가(originate countries)의 1인당 GDP를 제어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Eilat and Einav(2004), Naudé and Saayman(2005), Kimura and Lee(2006) 등도 관광객 국가의 1인당 GDP를 제어하였다.

관광재의 가격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광지
의 물가와 환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Khadaroo and Seetanah (2007)는
관광지(destination countries)의 환율 조정된 상대 물가 수준을 고려하였고, Dogru
et al.(2017)은 자국과 상대국의 가중 상대 물가와 환율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Martins
et al.(2017)은 명목환율과 미국 물가 대비 자국 물가의 상대물가를 동시에 제어하였다.
이 외에도 Chi(2015), Cheng et al.(2013), Lee et al.(1996), Song et al.(2016), De
Vita and Kyaw(2013) 등도 환율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과 가격 외의 관광수요 결정요인으로는 무역과 관련한 국제적 노출도(Chang
and Lai, 2011; Kimura and Lee, 2006), 여행관련 편의성(Khadaroo and Seetanah,
2007; Yazdi and Khanalizadeh, 2017), 정치적인 안정성(Sara et al., 2017) 등이
실증분석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다. 먼저, 상품의 수출은 수출국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수입국에 전파하여 여행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고, 상품 교역을 위한 비즈니스 여행도
증가하게 된다. Kimura and Lee(2006)는 지역무역협정이 회원국 간 여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고, Chang and Lai(2011)는 상품의 수출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행의 편의성이 높을수록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는데, Khadaroo and Seetanah(2007)는 교통 인프라가 여행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고, Yazdi and Khanalizadeh(2017)는 공항 인프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
막으로 관광지의 정치적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해당국과의 국제 분쟁이 있을 경우 관광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데, Sara et al.(2017)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인바운드 관광수
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Jin et al.(2019)은 국제정치적 분쟁이 관광수요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Chinn and Prasad(2003)의 경상수지 일반에 대한 결정요인 모형을 기
본으로 하여, 다양한 관광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광수지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다음 식
(3-1)과 같이 구축하였다.

$$(3-1) \quad TB_{ct} = \alpha + \beta_1 RI_{ct} + \beta_2 RG_{ct} + \beta_3 NFA_{ct} + \beta_4 OPENNESS_{ct} \\ + \beta_5 \Delta \ln(REER_{ct}) + \beta_6 \Delta \ln(CPI_{ct}) + \beta_7 YOUNG_{ct} + \beta_8 OLD_{ct} \\ + \beta_9 CELL_{ct} + \beta_{10} ELECT_{ct} + \beta_{11} PS_{ct} + \epsilon_{ct}.$$

여기서 첨자 c 는 횡단면의 국가를 의미하고, t 는 시계열의 연도를 의미한다. TB 는

GDP 대비 여행수지 비율, *RI*는 미국 GDP 대비 해당국의 상대 소득, *GROWTH*는 실질 1인당 GDP의 성장률, *NFA*는 순해외자산, *OPENNESS*는 (수출+수입)/GDP로 대리되는 무역개방도, *REER*은 실질실효환율, *CPI*는 소비자물가지수, *YOUNG*은 노동가능인구 대비 15-24세 인구 비율, *OLD*는 노동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CELL*은 인구 100명당 휴대전화 가입자 수, *ELECT*는 인구 100명당 전기 사용이 가능한 인구 비율, 마지막으로 *PS*는 정치적인 안정도(political stability)의 지수이다.²⁸⁾

먼저 *RI*와 *GROWTH*는 *c*국가의 소득수준이 여행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상대소득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높을수록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여행수지 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NFA*는 국제수지상의 금융계정을 나타내는데, 여행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상수지와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여행수지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OPENNESS*는 무역 개방도를 나타내는데, 무역이 활발할수록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들의 자국 출장도 활발해질 수 있고, 자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접한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 동기가 될 수 있다. 반면 자국민들의 비즈니스 목적의 해외 출장도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호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REER*과 *CPI*는 각각 환율과 국내 물가 측면에서의 국내 여행에 대한 비용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고려되었는데, 두 변수 모두 로그 차분 형태로 고려하여 전년 대비 증감률을 나타내었다. 두 변수 모두 상승할 경우 국내 여행 비용의 상승으로 외국인 국내 여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의 계수가 예상된다. *YOUNG*과 *OLD*는 인구학적 영향을 보기 위해 포함되었는데, 자산, 시간, 저축이 있는 노년층의 해외여행 수요가 많기 때문에 *YOUNG*에는 양의 계수가, *OLD*에는 음의 계수가 예상된다. 마지막 *CELL*, *ELECT*, *PS* 등의 변수는 여행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포함되었는데, 핸드폰 사용이 용이할수록, 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더 안전할수록 해외 여행객들의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여 여행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하였는데, 먼저 비용 측면에서 기본모형에서 고려한 환율(REER)과 물가(CPI)의 증감률에 더해, 물가와 환율의 2010년 대비 수준을 제어하였다. 다음으로 소득 차원에서 기본모형에서

28) 폭력, 테러 등의 사건에서 지수를 산출한다.

고려한 미국과 대비한 상대소득과 해당 국가의 1인당 실질소득의 증가율에 더해, 해당 국가의 성장률에서 세계 평균 성장률을 뺀 상대 성장률을 고려하였다. 또, 여행의 기타 편의성과 안전성에 대한 대체적인 변수로 부패(corruption)를 제어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에 등재된 문화유산, 복합유산, 자연유산 등이 등재된 시기부터 t 기까지의 등재된 유산의 합을 제어하여, 국가 고유의 관광상품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회귀 분석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국제 무역 분석에 있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료가 이상치(outliers)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사하라 이남 국가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더해 시계열적인 변화가 패널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하기 위해 연도 더미를 추가하여 아래 식 (3-2)를 추가 분석하였다. 식 (3-2)에서 λ_t 는 연도 더미를 의미한다.

$$\begin{aligned}
 (3-2) \quad TB_{ct} = & \alpha + \beta_1 RI_{ct} + \beta_2 RG_{ct} + \beta_3 NFA_{ct} + \beta_4 OPENNESS_{ct} \\
 & + \beta_5 \Delta \ln(REER_{ct}) + \beta_6 \Delta \ln(CPI_{ct}) + \beta_7 YOUNG_{ct} + \beta_8 OLD_{ct} \\
 & + \beta_9 CELL_{ct} + \beta_{10} ELECT_{ct} + \beta_{11} PS_{ct} + \lambda_t + \epsilon_{ct}.
 \end{aligned}$$

제3절 실증분석 결과

1. 분석 데이터

본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유네스코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1>은 각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관광수지(TB)는 관광수입과 관광지출의 차를 GDP 대비하여 도출하였다. 상대소득은 미국과의 상대 소득을 나타내고, 상대 성장률은 자국 성장률과 세계 성장률의 차를 통해 도출하였다. 정치적 안정성과 부패는 모두 Worldwide Governance Quality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지수는 -2.5에서 2.5의 값을 가지며, 거버넌스가 좋을수록 높은 값을 갖는다. 분석 데이터의 기술 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은 <표 3-1>과 같다.

2. 분석 결과

<표 3-2>는 기본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체로 예상한 부호의 방향이 일치하게 추정되었다. 상대소득(RI), 세계 실질 성장률과 자국 실질 성장률의 차(RG), 순해외자산, 노동가능인구 대비 15-24세 인구 비율(YOUNG), 인구 100명당 전기 접근이 가능한 인구(ELECT), 정치적 안정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Delta \ln(CPI_{ct})$)도 10% 수준에서 대체로 유의하나 물가수준을 제어했을 때는 유의성을 잃었다.

소득 수준 관련해서는 소득수준(RI)이 높을수록, 자국 소득의 상대적 성장 속도(RG)가 빠를수록 여행수지가 감소한다는 예상되었던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여행 상품은 정상재이고, 비교적 고가의 서비스재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여 해외

여행으로 인한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표 3-1〉 분석 자료의 기술 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Mean	SD
관광수지	1,544	2.335	5.939
순해외자산	1,544	0.281	0.759
상대 소득	1,544	0.374	0.424
상대 성장	1,544	-1.106	3.156
무역 개방도	1,544	92.870	66.436
차분 로그 실질실효환율	1,544	0.001	0.059
차분 로그 물가수준	1,544	0.042	0.054
유년인구비	1,544	41.206	21.723
고령인구비	1,544	15.662	9.061
모바일 통신	1,544	85.835	47.522
전력 접근성	1,544	87.625	24.388
차분 로그 인당GDP	1,544	0.020	0.034
정치적 안정성	1,544	0.145	0.902
로그 실질실효환율	1,544	4.593	0.136
로그 물가수준	1,544	4.546	0.344
부패	1,544	0.371	1.072

또한 국제수지의 집계 방식상에서 경상수지의 항목인 여행수지가 증가하면, 동시에 순해외자산도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회귀분석의 결과도 일치하였다. 비용 측면에서는 실질실효환율이 유의하지 않았고, 국내 물가상승률(CPI)은 제한적으로 유의하기는 하였으나 유의성이 높지는 않았다. 인구학적인 경향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YOUNG)에서 여행수지 흑자의 경향이 있었다. 해외여행이 고가의 정상재이기 때문에, 여가와 자산이 있는 노년층의 수요가 높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구 구조가 젊은 국가에서는 여행수지의 흑자 경향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에 대한 접근성(ELECT)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재의 여행에 있어서 편의성과 안전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여행의 안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정치적 안정과 폭력과 테러에 대한 제어는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여행수지를 높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3-3〉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한 추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관측

치가 200여 개 감소하였으나, 추정치는 질적인 측면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할 때, 결정계수가 다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는 연도 고정 효과를 포함한 기본 모형의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기본모형의 추정 결과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성장률의 연도별 추세치가 제거되면서, 세계 성장률 대비 상대 성장률의 계수의 크기가 작아지고, 자국 성장률을 추가한 네 번째 열에서는 그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5〉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고 연도 터미를 고려한 모형의 추정 결과이다. 추정 결과가 기본모형과 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기본 모형의 결과가 강건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6〉은 지역별 부표본(subsample)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선진국, 비선진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제외 비선진국, 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제외 비유럽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선진국에서는 상대소득, 순해외자산만이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고, 전체 표본에서 유의하던 상대성장률, YOUNG, 전력 접근성, PS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상대 성장률이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선진국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지만, 성장률 자체는 개발도상국보다 낮기 때문에, 연도별 성장률로 해외여행을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인구 구조도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들이 많아서 특별한 구조적 변화가 없는 안정적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전력 접근성이나 정치적 안정성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인바운드 관광수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선진 지역은 인구 구조(YOUNG)와 전력 접근성, 정치적 안정성이 관광수지의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인바운드 관광수요 결정에 전력접근성과 같은 여행 인프라와 정치적 안정성과 같은 안전 관련 항목들이 중요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지역을 제외한 비선진 지역도 비선진 지역과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지역은 인구 구조적 측면을 나타내는 YOUNG과 OLD가 모두 음의 유의한 추정치가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하라 이남 지역을 제외한 비유럽 국가들의 추정치에서는 상대소득, 상대성장, 물가상승률, YOUNG, 전력접근성, 정치적 안정성 등이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표 3-7〉은 지금까지 제시하였던 추정 모형에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복합유산, 자연유산을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예상과 달리 유네스코에 등재된 관광

관련 유산은 관광수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 없이 많은 문화, 자연 유산들은 관광상품으로 기능하고 있어서, 등재 자체가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폼페이 유적은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 없이 오랫동안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결과가 국가적인 관광상품이나 해외 홍보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본 장의 실증분석 결과 관광수지의 결정요인은 소득, 가격, 인구 구조, 관광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 경제학적 시각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기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 수준의 증가와 인구고령화에 따라 아웃바운드 관광수요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따라서 인바운드 증가를 위한 관광수지 개선 노력,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여행객들의 관광 편의성과 안전성의 제고, 홍보 등의 전통적인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개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2〉 기본모형 분석 결과

변수명	(1)	(2)	(3)	(4)	(5)
상대 소득	-6.472*** (1.501)	-6.606*** (1.529)	-6.527*** (1.522)	-6.470*** (1.501)	-7.132*** (2.083)
상대 성장	-0.152** (0.073)	-0.146* (0.074)	-0.150** (0.074)	-0.194** (0.085)	-0.152** (0.073)
순해외자산	1.441** (0.622)	1.456** (0.622)	1.445** (0.620)	1.442** (0.622)	1.545** (0.641)
무역 개방도	-0.003 (0.009)	-0.003 (0.009)	-0.004 (0.009)	-0.003 (0.009)	-0.003 (0.009)
차분 로그 실질실효환율	1.234 (1.628)	-0.106 (1.680)	1.387 (1.675)	1.148 (1.592)	1.414 (1.612)
차분 로그 물가수준	-7.930* (4.358)	-6.201 (4.522)	-10.998** (5.448)	-7.940* (4.353)	-7.668* (4.340)
유년인구비	0.119** (0.050)	0.118** (0.050)	0.122** (0.051)	0.119** (0.050)	0.120** (0.050)
고령인구비	-0.065 (0.104)	-0.058 (0.102)	-0.069 (0.105)	-0.065 (0.104)	-0.065 (0.104)
모바일 통신	0.011 (0.012)	0.011 (0.012)	0.018 (0.019)	0.011 (0.012)	0.011 (0.012)
전력 접근성	0.117*** (0.037)	0.117*** (0.037)	0.114*** (0.037)	0.117*** (0.037)	0.116*** (0.038)
정치적 안정성	3.464*** (0.820)	3.462*** (0.818)	3.435*** (0.802)	3.464*** (0.820)	3.288*** (0.805)
로그 실질실효환율		2.565 (1.999)			
로그 물가수준			-1.329 (1.523)		
차분 로그 인당GDP				4.214 (6.694)	
부패					0.432 (0.854)
관측치	1,544	1,544	1,544	1,544	1,544
결정계수	0.260	0.263	0.263	0.261	0.262

주: 종속변수는 GDP 대비 관광수지이며,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한 강건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3-3〉 사하라 이남 국가를 제외한 기본모형 분석 결과

변수명	(1)	(2)	(3)	(4)	(5)
상대 소득	-7.793*** (1.563)	-7.786*** (1.577)	-7.857*** (1.591)	-7.795*** (1.564)	-7.723*** (2.097)
상대 성장	-0.223** (0.091)	-0.224** (0.093)	-0.221** (0.092)	-0.287*** (0.107)	-0.223** (0.091)
순해외자산	1.622*** (0.606)	1.621*** (0.605)	1.630*** (0.602)	1.623*** (0.606)	1.610** (0.621)
무역 개방도	-0.005 (0.009)	-0.005 (0.009)	-0.006 (0.009)	-0.005 (0.009)	-0.005 (0.009)
차분 로그 실질실효환율	0.600 (1.776)	0.687 (2.129)	0.831 (1.799)	0.475 (1.766)	0.589 (1.740)
차분 로그 물가수준	-11.603** (5.674)	-11.732** (5.854)	-15.350** (7.046)	-11.630** (5.667)	-11.652** (5.694)
유년인구비	0.143*** (0.046)	0.143*** (0.046)	0.146*** (0.047)	0.143*** (0.046)	0.143*** (0.048)
고령인구비	-0.102 (0.107)	-0.103 (0.108)	-0.105 (0.109)	-0.103 (0.108)	-0.102 (0.108)
모바일 통신	0.019 (0.015)	0.019 (0.015)	0.026 (0.023)	0.020 (0.015)	0.019 (0.015)
전력 접근성	0.136*** (0.034)	0.136*** (0.034)	0.136*** (0.034)	0.136*** (0.034)	0.136*** (0.035)
정치적 안정성	4.317*** (1.019)	4.319*** (1.017)	4.279*** (0.989)	4.316*** (1.019)	4.338*** (1.018)
로그 실질실효환율		-0.187 (2.336)			
로그 물가수준			-1.519 (2.021)		
차분 로그 인당GDP				6.285 (7.778)	
부패					-0.047 (0.868)
관측치	1,302	1,302	1,302	1,302	1,302
결정계수	0.303	0.303	0.306	0.306	0.303

주: 종속변수는 GDP 대비 관광수지이며,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한 강건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3-4〉 연도 고정 효과를 포함한 기본모형 분석 결과

변수명	(1)	(2)	(3)	(4)	(5)
상대 소득	-6.405*** (1.610)	-6.517*** (1.628)	-6.305*** (1.583)	-6.405*** (1.610)	-7.258*** (2.085)
상대 성장	-0.166** (0.081)	-0.161* (0.082)	-0.171** (0.081)	0.662 (2.524)	-0.167** (0.081)
순해외자산	1.463** (0.641)	1.472** (0.642)	1.468** (0.637)	1.463** (0.641)	1.603** (0.682)
무역 개방도	-0.002 (0.008)	-0.002 (0.008)	-0.004 (0.008)	-0.002 (0.008)	-0.003 (0.009)
차분 로그 실질실효환율	0.775 (1.799)	-0.649 (1.807)	1.105 (1.816)	0.775 (1.799)	0.993 (1.742)
차분 로그 물가수준	-8.063* (4.514)	-5.788 (4.656)	-13.341** (5.529)	-8.063* (4.514)	-7.662* (4.473)
유년인구비	0.112** (0.054)	0.110** (0.054)	0.108** (0.054)	0.112** (0.054)	0.112** (0.054)
고령인구비	-0.071 (0.108)	-0.064 (0.106)	-0.090 (0.110)	-0.071 (0.108)	-0.072 (0.108)
모바일 통신	0.001 (0.029)	-0.000 (0.028)	0.005 (0.029)	0.001 (0.029)	-0.000 (0.029)
전력 접근성	0.119*** (0.038)	0.119*** (0.037)	0.116*** (0.037)	0.119*** (0.038)	0.118*** (0.038)
정치적 안정성	3.510*** (0.802)	3.516*** (0.802)	3.494*** (0.790)	3.510*** (0.802)	3.288*** (0.814)
로그 실질실효환율		2.793 (2.059)			
로그 물가수준			-2.712** (1.107)		
차분 로그 인당GDP				-82.891 (256.105)	
부패					0.562 (0.885)
관측치	1,544	1,544	1,544	1,544	1,544
결정계수	0.265	0.269	0.273	0.265	0.267

주: 종속변수는 GDP 대비 관광수지이며,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한 강건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연도 고정 효과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표 3-5〉 사하라 이남 국가 제외 및 연도 고정 효과 포함 분석 결과

변수명	(1)	(2)	(3)	(4)	(5)
상대 소득	-7.805*** (1.666)	-7.803*** (1.674)	-7.744*** (1.634)	-7.805*** (1.666)	-7.939*** (2.071)
상대 성장	-0.251** (0.101)	-0.251** (0.103)	-0.258** (0.101)	0.420 (2.738)	-0.251** (0.101)
순해외자산	1.663*** (0.625)	1.663*** (0.625)	1.679*** (0.617)	1.663*** (0.625)	1.686** (0.665)
무역 개방도	-0.005 (0.009)	-0.005 (0.009)	-0.006 (0.009)	-0.005 (0.009)	-0.005 (0.009)
차분 로그 실질실효환율	0.193 (1.911)	0.219 (2.232)	0.794 (1.910)	0.193 (1.911)	0.212 (1.865)
차분 로그 물가수준	-12.738** (5.906)	-12.783** (6.088)	-19.574** (7.443)	-12.738** (5.906)	-12.635** (5.883)
유년인구비	0.130** (0.053)	0.130** (0.052)	0.126** (0.052)	0.130** (0.053)	0.130** (0.055)
고령인구비	-0.110 (0.112)	-0.111 (0.112)	-0.128 (0.115)	-0.110 (0.112)	-0.111 (0.113)
모바일 통신	0.009 (0.033)	0.009 (0.033)	0.013 (0.034)	0.009 (0.033)	0.008 (0.034)
전력 접근성	0.135*** (0.034)	0.135*** (0.034)	0.135*** (0.034)	0.135*** (0.034)	0.135*** (0.035)
정치적 안정성	4.359*** (1.002)	4.360*** (1.001)	4.316*** (0.979)	4.359*** (1.002)	4.318*** (1.059)
로그 실질실효환율		-0.056 (2.354)			
로그 물가수준			-3.139* (1.658)		
차분 로그 인당GDP				-67.049 (279.016)	
부패					0.093 (0.910)
관측치	1,302	1,302	1,302	1,302	1,302
결정계수	0.313	0.313	0.320	0.313	0.313

주: 종속변수는 GDP 대비 관광수지이며,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한 강건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연도 고정 효과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표 3-6〉 지역별 서브 샘플 분석 결과

변수명	비사하라·선진 (1)	비선진 (2)	비사하라·비선진 (3)	비사하라·유럽 (4)	비사하라·비유럽 (5)
상대 소득	-5.682*** (1.689)	11.922 (7.847)	5.176 (9.340)	-5.075*** (1.282)	-8.025*** (2.790)
상대 성장	-0.039 (0.072)	-0.021 (0.100)	-0.070 (0.139)	0.082 (0.075)	-0.237** (0.112)
순해외자산	2.338*** (0.578)	-5.164 (3.547)	-4.350 (3.622)	1.480*** (0.402)	0.830 (2.729)
무역 개방도	-0.011 (0.010)	0.036 (0.025)	0.041 (0.027)	-0.003 (0.011)	-0.006 (0.013)
차분 로그 실질실효환율	3.233 (2.005)	1.371 (3.064)	0.535 (3.230)	5.878** (2.542)	-0.221 (2.181)
차분 로그 물가수준	6.797 (17.165)	-4.645 (4.273)	-5.767 (5.982)	-13.662 (16.902)	-11.370* (5.861)
유년인구비	-0.007 (0.089)	0.123* (0.065)	0.118* (0.067)	-0.399*** (0.125)	0.151*** (0.054)
고령인구비	-0.004 (0.115)	-0.103 (0.144)	-0.211 (0.171)	-0.347** (0.148)	-0.120 (0.124)
모바일 통신	-0.016 (0.017)	-0.007 (0.040)	0.007 (0.049)	-0.010 (0.022)	0.020 (0.044)
전력 접근성	-12.918 (20.496)	0.100** (0.040)	0.113*** (0.034)		0.142*** (0.034)
정치적 안정성	0.947 (0.677)	3.153*** (0.813)	4.441*** (1.170)	0.338 (0.781)	4.763*** (1.116)
관측치	587	957	715	336	966
결정계수	0.467	0.369	0.417	0.660	0.305

주: 종속변수는 GDP 대비 관광수지이며,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한 강건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연도 고정 효과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표 3-7〉 유네스코 등재 유산 영향

대응모형	항목	문화유산	복합유산	자연유산	결합검정
〈표 3-2〉	회귀계수 [F-통계량]	-0.039	-0.229	-0.089	[0.770]
	표준오차 [p-value]	0.042	0.476	0.153	[0.511]
〈표 3-3〉	회귀계수 [F-통계량]	-0.037	0.289	-0.187	[0.750]
	표준오차 [p-value]	0.042	0.425	0.174	[0.524]
〈표 3-4〉	회귀계수 [F-통계량]	-0.038	-0.259	-0.102	[0.860]
	표준오차 [p-value]	0.043	0.489	0.155	[0.467]
〈표 3-5〉	회귀계수 [F-통계량]	-0.036	0.249	-0.202	[0.780]
	표준오차 [p-value]	0.043	0.446	0.176	[0.509]

주: 앞에서 제시한 각 표의 5번째 열의 모형 설정에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복합유산, 자연유산을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다른 변수들의 계수 크기, 방향, 유의성 등은 대동소이하였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계수만 별도로 보고한다. 모든 모형 설정에서 문화유산, 복합유산, 자연유산은 각각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동시에, 결합가설검정에서도 모두 영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하지 않은 다른 결과들에서도 유네스코 등재 유산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괄호가 없는 수치는 회귀계수 또는 표준오차, 대괄호 안의 수치는 검정통계량과 유의확률이다.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관광수지 영향요인의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관광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분석 모형에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상대소득, 세계 실질 성장률과 자국 실질 성장률의 차이, 순해외자산, 유년인구비 등이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자국의 소득이 타국과 대비하여 높을수록, 자국의 실질 성장률이 타국과 대비하여 빠를수록 여행수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여행이 정상재라는 가정 아래에서 소득의 증가가 해외여행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결과이다. 순해외자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국제수지의 집계 방식상 여행수지의 증감 방향과 순해외자산의 증감 방향이 일치하므로 여기서 제시한 모형 설정이 타당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거나 연도 고정 효과를 포함하는 모형에서도 상기한 분석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진국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대소득과 순해외자산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국과 타국의 소득 차이가 선진국의 관광수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또한 인구 구조가 오래전에 소산소사(少産少死) 상태에 접어들어 인구 고령화의 수준이 안정적인 편이기도 하다. 반면에 비선진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변수들과 더불어 인구 구조, 전력 접근성, 정치적 안정성 등의 변수들도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여행 목적지의 선택에서 관광지의 개발 정도나 신변 안전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 등재 유산도 분석에서 고려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 관광수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기보다, 등재 이전부터 이미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등재 자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

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²⁹⁾ 그러나 여기서의 결과만으로 유네스코 등재 유산의 관광객 유치 효과에 대한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문화재 및 유네스코 등재 등이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관광수지도 경상수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변수들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모든 모형과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대소득으로 나타났다. 상대소득의 변화는 일본의 관광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중국의 관광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점을 잘 설명해 준다. 두 국가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의 관광객 유출이 늘어난 동시에 중국에서의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는 두 상반된 효과가 서로 상계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소득 격차가 감소할수록 방한 중국인도 증가할 것이고(김형중, 2019), 따라서 관광수지의 개선 혹은 매우 우호적인 조건 아래에서는 흑자까지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한 상대소득이 감소하면서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증가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김형중, 2023). 이 경우에도 관광수지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년인구의 비율이 관광수지 흑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유산층인 고령 인구의 해외여행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관광공급의 감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³⁰⁾

본 장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는 인근 지역에서의 빠른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기대보다 관광수지가 개선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우리의 관광수지 개선을 외생적인 요소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소극적인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개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수지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29) 이러한 경우 등재 시점을 전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관광객 변화는 없을 수 있다.

30)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관광서비스 공급 능력의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국외의 방한관광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한관광객의 수는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관광수요의 증가와 관광공급의 감소로 인해 균형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관광수지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인구 고령화와 관광수지의 변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미시적 분석: 관광수지와 케이콘텐츠

제1절 분석 개요

아가씨, 기생충,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소위 케이콘텐츠가 누리는 최근의 국제적인 인기는 상당한 수준이다. 케이콘텐츠의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케이콘텐츠의 인기가 간접적으로 관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에도, 이를 과학적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케이콘텐츠의 인기를 측정하는 작업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³¹⁾ 본 장에서는 관광수지와 케이콘텐츠의 관계를 데이터로 실증 분석하고 그 결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에서 한국 콘텐츠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표는 국내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OTT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Netflix)의 1일 인기작 리스트 ‘Top 10’을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케이콘텐츠의 인기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를 작성하였다.³²⁾

관광수지 역시 개별 국가와 한국 사이의 관광 수출입을 짧은 간격으로 측정하여 산출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출입국 데이터로 집계하는 방안 외래객으로 대리하여 측정한다. 웹에서 수집한 넷플릭스 데이터를 방한 외래객과 결합하면 케이콘텐츠가 인기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관광객 증가를 산출하고 타 국가와 비교할 수 있다. 외래 방한객의 증가는 관광 수출의 증가를 의미하고, 따라서 다른 국가보다 빠른 국제 관광객의 증가는 케이콘텐츠의 영향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31) 기존 한류 연구의 한계로 한류를 측정한 데이터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또한 한류의 정의나 개념이 확장될 수록 경제적인 변수와의 인과관계 측정은 더욱 모호해진다는 점도 한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보다는 최근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는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열거하고 그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케이콘텐츠의 영향 측정을 시도한다.

32) 국내 OTT 업체들은 해외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케이콘텐츠의 인기를 가능하기 위한 분석에 활용하기 어렵다.

만약 케이콘텐츠가 상당하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방한 외래객 증가에 미칠 수 있다면 이는 상당한 정책적 시사점이 존재한다. 바로 케이콘텐츠 투자를 통하여 관광수지만이 아니라 전체 서비스수지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의 제2절에서는 분석 데이터 및 모형을 소개하고, 제3절에서는 실증 분석 및 결과 해석을 제시한다.

제2절 분석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콘텐츠의 국제적인 인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웹에서 개별 국가의 넷플릭스 인기 순위를 수집하였다.³³⁾ 단, 모든 국가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영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음을 밝힌다.³⁴⁾ 넷플릭스 인기 순위를 수집한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각 국가별로 일일 10위까지의 인기 순위를 영화 및 티브이 시리즈물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에서 개별적으로 식별되는 영화의 수는 7,095개, 티브이 시리즈는 2,338개이다.

넷플릭스 인기 순위 수집 국가 목록

넷플릭스 인기 순위 Top 10 데이터를 수집한 국가는 총 87개국이다. 데이터는 영어를 기준으로 수집하였으므로, 국가 명칭도 영어 알파벳순(alphabetical order)으로 제시한다.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ahamas, Bahrain, Bangladesh, Bolivia, Brazil, Bulgaria, Canada, Chile, Colombia, Costa Ric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Guatemala, Honduras, Hong Kong,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apan, Jordan, Kenya, Kuwait, Latvia, Lebanon, Lithuania, Luxembourg, Malaysia, Maldives, Malta, Mauritius, Mexico, Morocco,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anam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omania, Saudi Arabia, Serb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weden, Switzerland, Taiwan,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Turkey,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Venezuela, and Vietnam.

식별되는 콘텐츠 가운데 케이콘텐츠로 분류하는 작품의 명칭은 영화, 티브이 시리즈 각각 다음 <표 4-1>, <표 4-2>와 같다.

33) 각 국가별로 수집한 넷플릭스 인기 순위 데이터의 관측치는 총 950,030개이다.

34) 현지어 기준의 데이터 수집은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개수의 한계뿐만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의 인코딩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표 4-1〉 인기 케이콘텐츠 영화 목록

영화 국문명	영화 영문명	빈도수
길복순	Kill Boksoon	1,159
#살아 있다	#Alive	1,058
카터	Carter	986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Unlocked	976
해적: 도깨비 깃발	The Pirates: The Last Royal Treasure	917
야차	Yaksha: Ruthless Operations	822
정이	JUNG_E	786
승리호	Space Sweepers	760
20세기 소녀	20th Century Girl	747
킹덤: 아신전	Kingdom: Ashin of the North	711
콜	The Call	469
모럴센스	Love and Leashes	323
기생충	Parasite	287
서울대작전	Seoul Vibe	271
반도	Peninsula	213
낙원의 밤	Night in Paradise	200

주: 빈도수는 국가에 상관없이 해당 작품이 인기 10위 안에 포함된 일자를 합산한 수치이다.

넷플릭스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린 작품은 ‘길복순’, #살아 있다, 카터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기 세 작품이 각 국가의 인기 10위 안에 포함된 횟수는 약 1,000 회 내외로 나타났다. 한편 넷플릭스 한국 티브이 시리즈 가운데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린 작품은 ‘오징어 게임’으로 영화와 달리 2위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다음으로 ‘지금 우리 학교는’, ‘환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내 맞선’, ‘더 글로리’ 등도 상당한 인기를 구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에 비해서 티브이 시리즈물이 인기 순위에 포함된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한국 티브이 시리즈에 대한 선호가 증대하였고, 시리즈물 특성상 여러 번에 나누어 이어보기 때문에 순위에 보다 빈번하게 포함될 가능성이 영화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³⁵⁾

35) 예를 들어, 길복순은 하루에 시청을 끝낼 수 있는 반면에, 오징어 게임의 시청은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표 4-2〉 인기 케이콘텐츠 티브이 시리즈 목록

티브이 시리즈 국문명	티브이 시리즈 영문명	빈도수
오징어 게임	Squid Game	8,137
지금 우리 학교는	All of Us Are Dead	4,228
환혼	Alchemy of Souls	4,134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Extraordinary Attorney Woo	3,967
사내 맞선	Business Proposal	3,835
더 글로리	The Glory	3,832
갯마을 차차차	Hometown Cha-Cha-Cha	2,620
신사와 아가씨	Young Lady and Gentleman	2,444
피지컬 100	Physical: 100	2,343
마이 네임	My Name	1,592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Money Heist: Korea - Joint Economic Area	1,556
사냥개들	Bloodhounds	1,413
지옥	Hellbound	1,323
기상청 사람들	Forecasting Love and Weather	1,176
수리남	Narco-Saints	1,134
내일	Tomorrow	1,050
고요의 바다	The Silent Sea	1,013
그해 우리는	Our Beloved Summer	1,007
택배기사	Black Knight	965
스위트 홈	Sweet Home	866
경이로운 소문	The Uncanny Counter	855
고스트 닥터	Ghost Doctor	849
우리들의 블루스	Our Blues	821
퀸메이커	Queenmaker	764
연애 대전	Love to Hate You	732
서른, 아홉	Thirty-Nine	720
소년 심판	Juvenile Justice	667
킹더랜드	King the Land	542
안나라수마나라	The Sound of Magic	476
이번 생도 잘 부탁해	See You in My 19th Life	297
킹덤	Kingdom	220
무브 투 헤븐	Move to Heaven	217
모범 가족	A Model Family	207

주: 빈도수는 국가에 상관없이 해당 작품이 인기 10위 안에 포함된 일자를 합산한 수치이다.

넷플릭스 인기 순위 데이터에서 케이콘텐츠의 인기를 측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표 4-1>과 <표 4-2>에 포함된 콘텐츠가 인기 순위에 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작품 사이의 인기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기 있는 케이콘텐츠를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작품인 오징어 게임만으로 한정하는 방법, 인기 순위 1위인 사례만으로 한정하는 방법, 인기 순위를 점수로 치환하여 합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였다.

<표 4-3> 기술 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Mean	SD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_{ct})$	35,870	1.906	2.218
Films score _{ct}	35,870	1.763	8.745
TV Shows score _{ct}	35,870	8.999	27.394
Top 1 TV _{ct}	35,870	0.218	1.103
Top 5 TV _{ct}	35,870	0.849	2.818
Top 10 TV _{ct}	35,870	1.518	4.297
Top 1 Squid _{ct}	35,870	0.079	0.699
Top 5 Squid _{ct}	35,870	0.162	1.016
Top 10 Squid _{ct}	35,870	0.227	1.208
Cumulative Top 1 _{ct}	35,870	14.794	40.345
Cumulative Top 5 _{ct}	35,870	50.501	141.572
Cumulative Top 10 _{ct}	35,870	85.875	230.187
Cumulative Top 1 Squid _{ct}	35,870	7.109	15.108
Cumulative Top 5 Squid _{ct}	35,870	14.152	28.820
Cumulative Top 10 Squid _{ct}	35,870	19.267	39.952
Dummy Top 1 TV _{ct}	35,870	0.238	0.426
Dummy Top 5 TV _{ct}	35,870	0.272	0.445
Dummy Top 10 TV _{ct}	35,870	0.309	0.462

넷플릭스 인기 순위 데이터는 국가 수준에서 수집하였기 때문에 국가별 방한 외래객과 수월하게 결합할 수 있다. 방한 외래객 데이터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데이터셋의 기술 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은 <표 4-3>과 같다. 방한 외래객은 일반적으로 분석에 사용하는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 값으로 가공하였다. 그 외의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하에서 제시하는 개별 실증분석 결과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4-1]부터 [그림 4-8]까지는 인기 순위를 점수로 치환한 지표의 누적치를 특정

국가를 선별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³⁶⁾ [그림 5-1]은 북미주와 남미주에서 가장 큰 국가인 미국과 브라질을 골라 케이콘텐츠의 인기도를 시계열도(時系列圖; time series plot)로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굵은 선은 케이콘텐츠의 인기도 추이를 가는 수직 선(vertical line)은 오징어 게임(Squid Game)이 공개된 2021년 38주를 의미한다.³⁷⁾ 두 국가 모두 오징어 게임의 공개 이후로 케이콘텐츠 인기도가 수직 상승하며 케이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그림 4-2]는 일본과 대만에서 케이콘텐츠의 인기도를 보여 준다. 두 국가 모두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케이콘텐츠 인기도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나라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기존에도 케이콘텐츠를 소비하던 지역이나, 본 연구가 수집한 넷플릭스 데이터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공개 이후로 케이콘텐츠의 소비가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은 동남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의 케이콘텐츠 인기도를 보여 준다. 앞에서 살펴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오징어 게임 이후 케이콘텐츠의 소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두 나라의 케이콘텐츠 인기도는 일본 및 대만과 비교하여도 절대 낮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4]는 인도와 싱가포르의 케이콘텐츠 인기도를 보여 준다. 두 나라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케이콘텐츠가 인기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그림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유사한 수준의 케이콘텐츠 인기 패턴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에서도 앞에서와 거의 동일한 인기도 추이가 관찰되며 케이콘텐츠의 소비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넷플릭스 데이터상에서 케이콘텐츠 소비의 급격한 증가는 오징어 게임의 대히트 이후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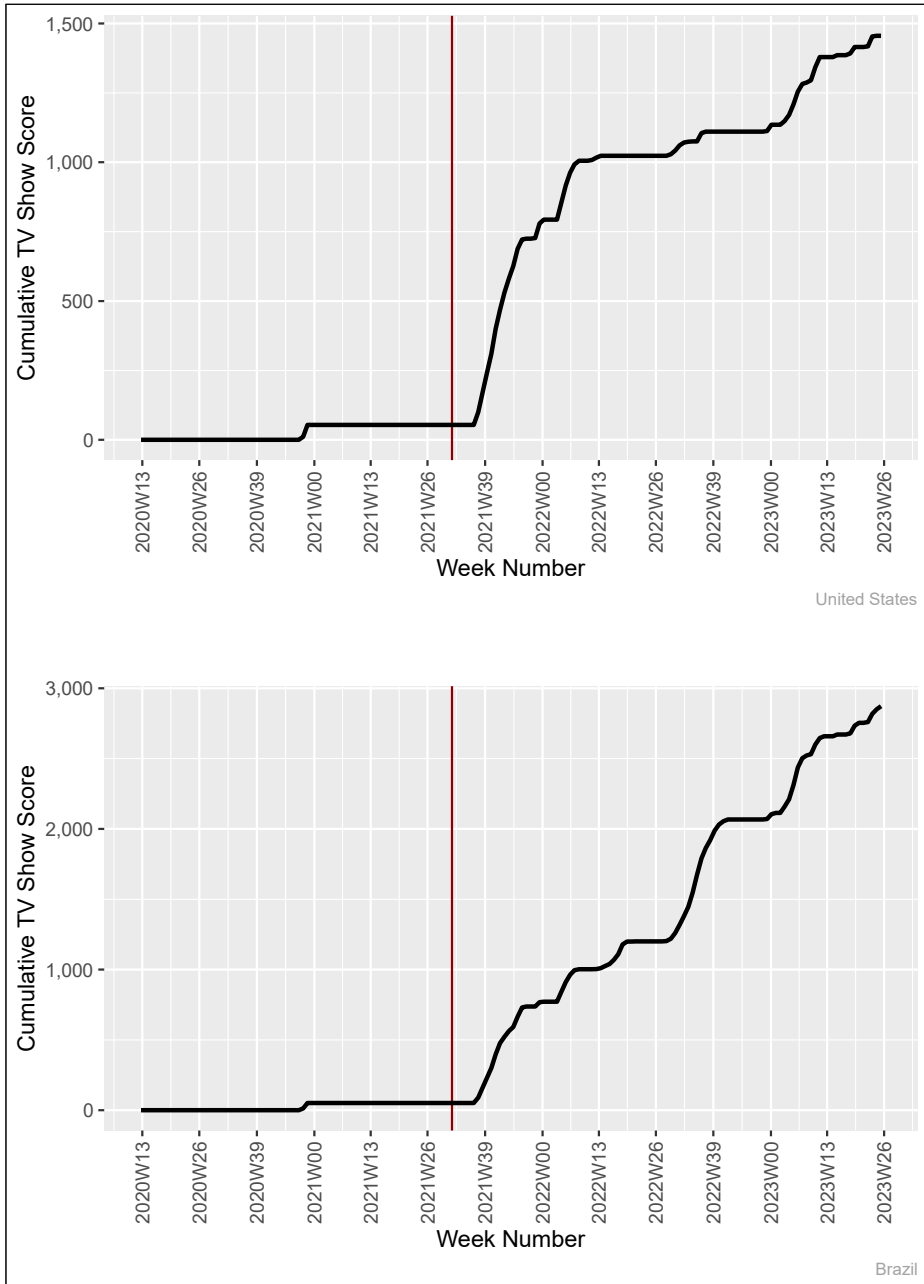
36) 케이콘텐츠의 국제적인 인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의 선택은 가급적 육대주에 분포하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선정하였다. 여기서 제시하는 국가들은 단순히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며 지면상의 제약으로 모든 국가를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실제 분석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국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37)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정확한 일자 는 2021년 9월 17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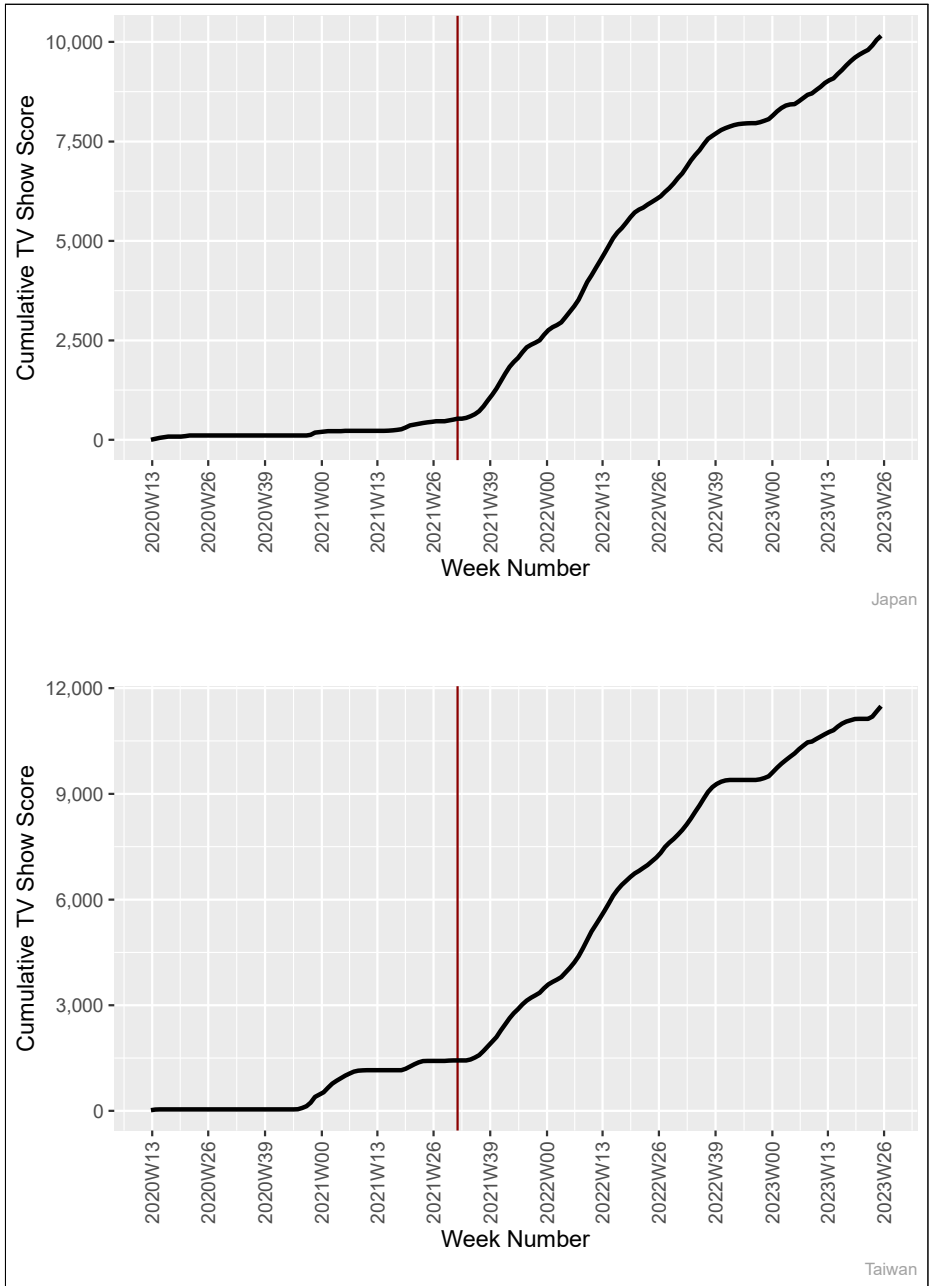
38) 만약 케이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소비되지 않는다면 케이콘텐츠 인기도의 시계열은 정체된 모습을 보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39)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관심사인 케이콘텐츠가 관광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긍정적 요소이다. 오징어 게임 이전의 케이콘텐츠 인기는 공개 이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전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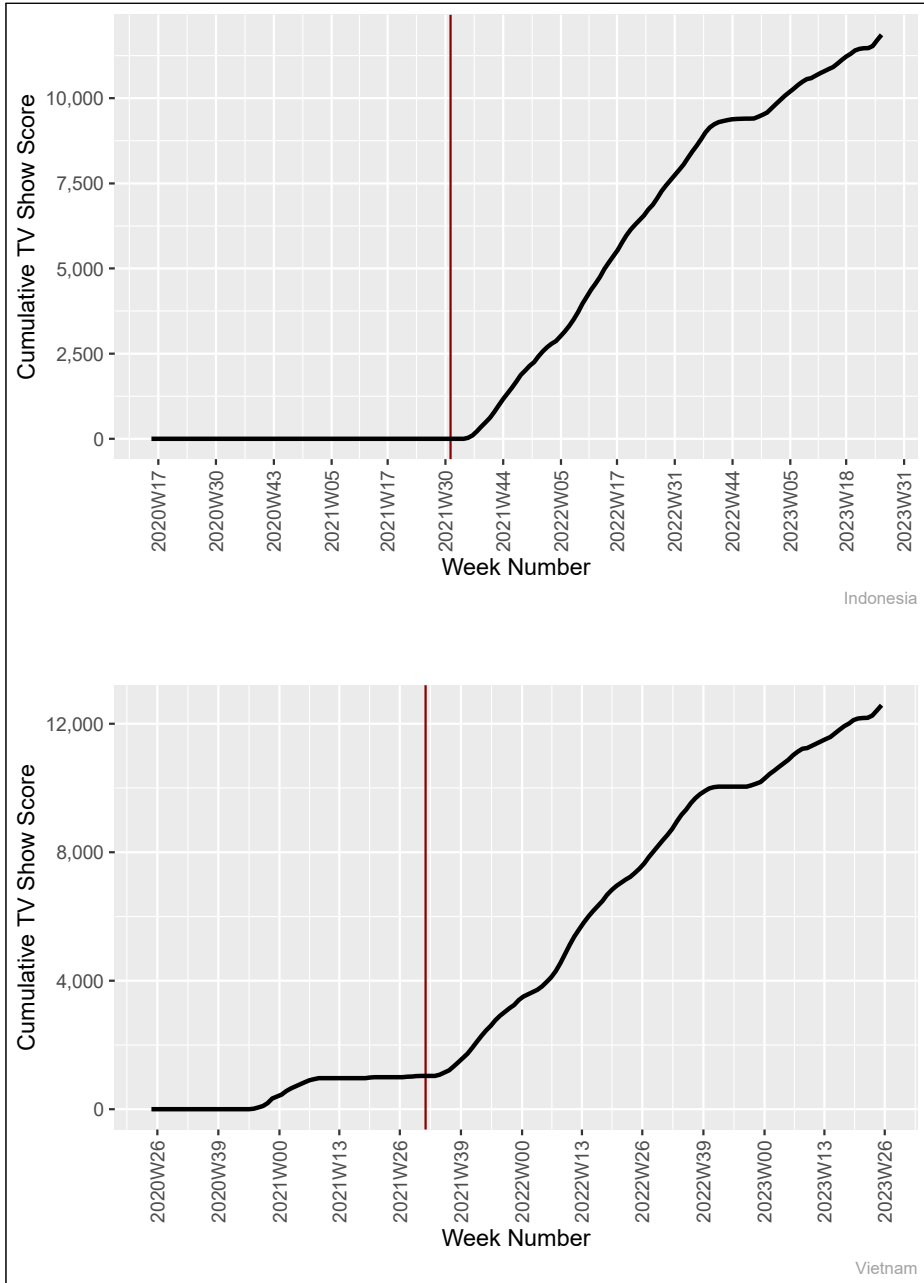
[그림 4-1] 케이콘텐츠 인기도: 미국,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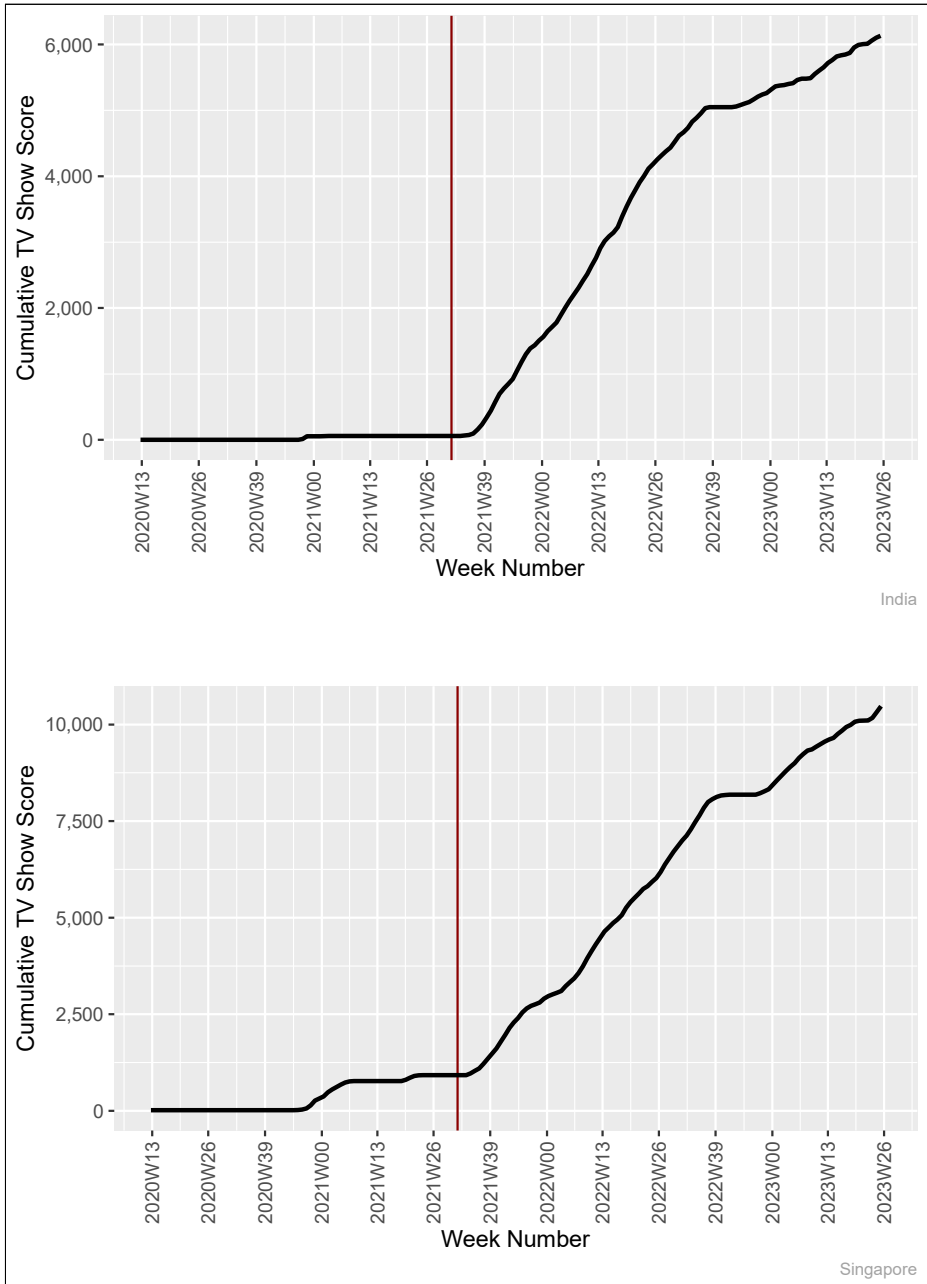
[그림 4-2] 케이콘텐츠 인기도: 일본,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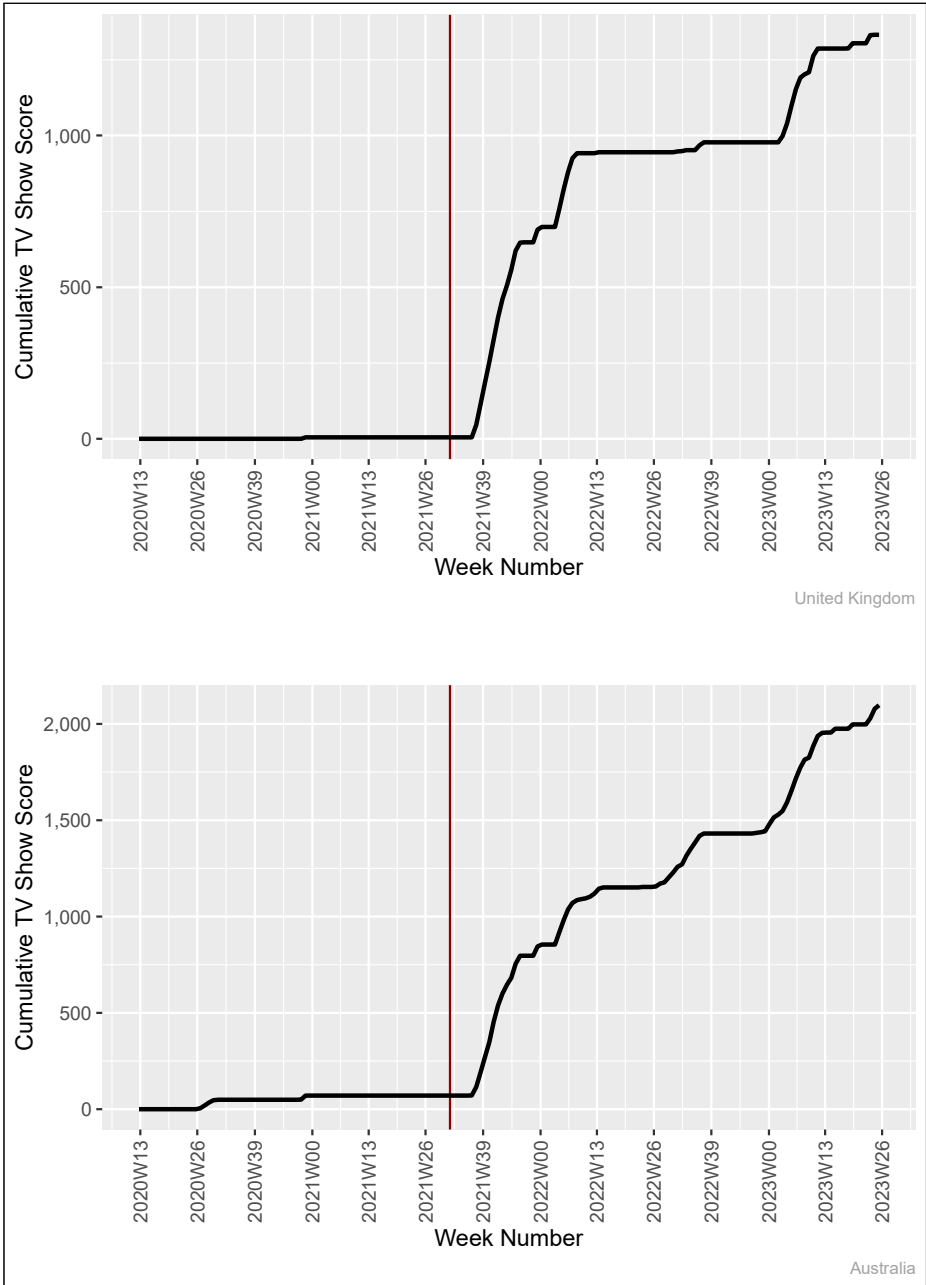
[그림 4-3] 케이콘텐츠 인기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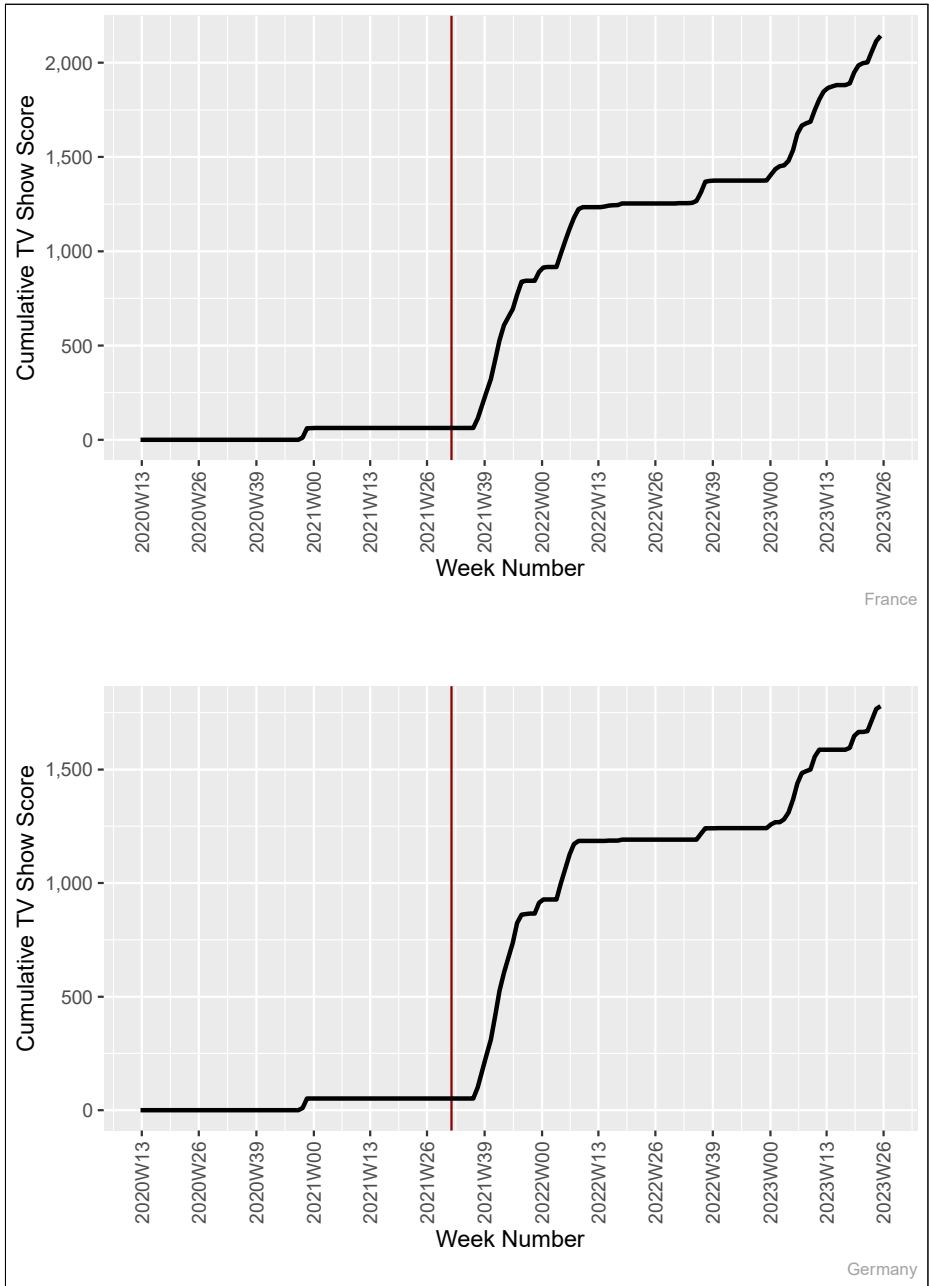
[그림 4-4] 케이콘텐츠 인기도: 인도,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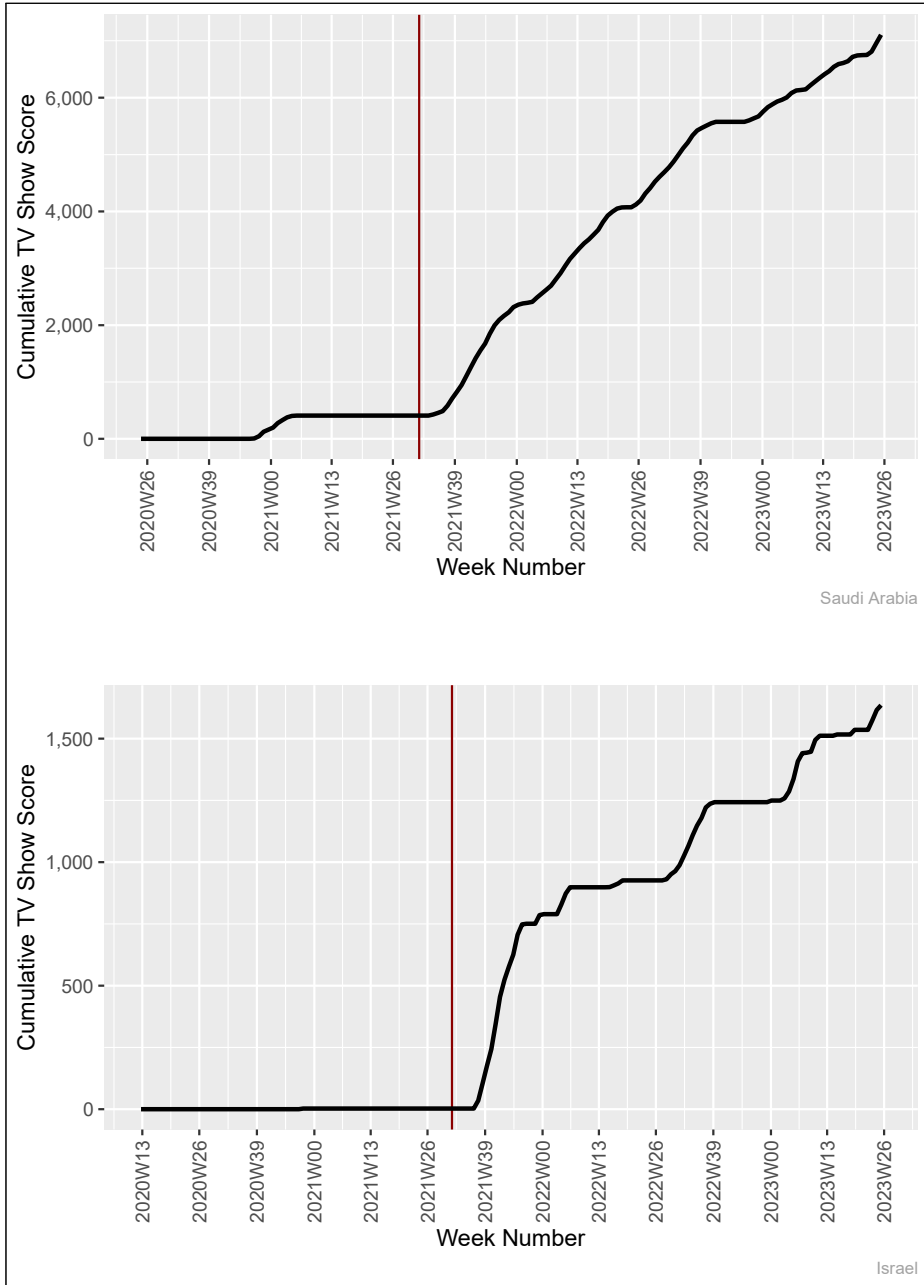
[그림 4-5] 케이콘텐츠 인기도: 영국,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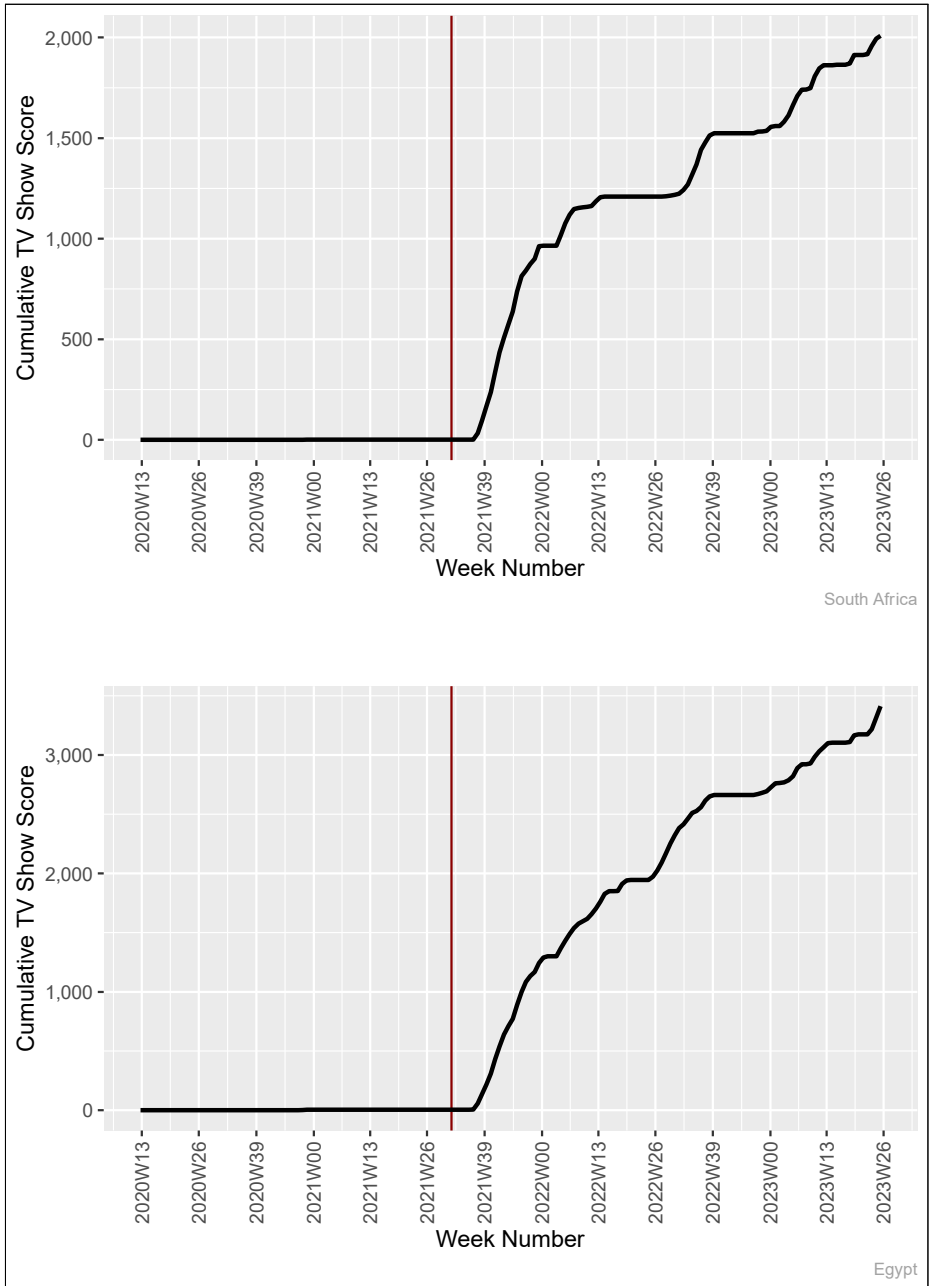
[그림 4-6] 케이콘텐츠 인기도: 프랑스, 독일



[그림 4-7] 케이콘텐츠 인기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그림 4-8] 케이콘텐츠 인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제3절 실증분석 결과

1. 분석 모형

케이콘텐츠의 분석을 위하여 작성된 데이터가 국가 수준의 패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석 모형 역시 패널 데이터 모형으로 설정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장의 분석 목표는 케이콘텐츠가 관광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관광지출(international tourism expenditure)은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수지의 적극적인 개선은 관광수입이 증대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관광수지 통계는 작성 주기가 분기이기 때문에 날마다 발표하는 넷플릭스 인기 순위의 주기에 비교하면 매우 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별 방한 외래객을 관광수지, 정확하게는 관광수입(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의 대리 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한다. 만약 케이콘텐츠가 방한 외래객을 평균적으로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는 관광수입의 증가로 이어져 관광수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술한 이유로 기본적인 분석 모형은 국가별 관광객이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 따라 변동하는지를 측정한다. 본 연구의 기본 모형(baseline model)을 다음과 같은 회귀 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ln(\text{tourist}_{ct}) = \delta \text{Netflix}_{ct} + \alpha_c + \lambda_t + \epsilon_{ct}.$$

위의 수식에서 tourist_{ct} 는 특정 국가 c 의 특정 연도의 특정 주 t 의 방한 외래객, 자연로그를 취한 값은 $\ln(\text{tourist}_{ct})$ 로 표기한다.⁴⁰⁾ Netflix_{ct} 는 수집한 넷플릭스 인기 변수이다. α_c , λ_t 는 각각 특정 국가와 특정 시기에 존재하는 고정 효과(fixed effects)

40) 정확하게는 방한 외래객에 1을 더한 수치의 로그 값을 취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방한 외래객이 없는 시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다. ϵ_{ct} 는 오차항이다. 넷플릭스 인기 변수는 케이콘텐츠의 효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가공하였으며, 그 형태는 회귀분석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해석하면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한다. 해당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은 이전 절의 <표 4-3>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급격한 방한 외래객 감소가 분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방한 외래객이 완전히 감소한 2020년 13주 차 이후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방한 외래객이 가장 많은 중국도 본 분석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⁴¹⁾

<표 4-4> 기본 모형: 영화 점수 및 티브이 점수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_{ct})$

변수명	(1)	(2)
Films score _{ct}	0.003*** (0.001)	
TV Shows score _{ct}		0.005*** (0.001)
상수항	1.126*** (0.058)	1.126*** (0.057)
국가 고정 효과	통제	통제
시간 고정 효과	통제	통제
관측치	35,870	35,870
결정계수	0.502	0.509
나라의 수	211	211

주: 표의 괄호 안은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된 표준 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by country level)이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4-4>는 넷플릭스 인기 순위를 영화 점수(Films score_{ct})와 티브이 점수(TV Shows score_{ct})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영화 점수와 티브이 점수는 넷플릭스 영화

41) 중국은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큰 이유가 두 가지 존재한다. 첫째, 중국은 공식적으로 넷플릭스가 진입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기 순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암암리에 한국 콘텐츠의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케이콘텐츠의 효과가 방한 외래객에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해외여행 재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연구가 진행 중인 8월 10일에서야 자국민의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하였다. 상술한 이유에 따라 방한 중국인 데이터는 케이콘텐츠의 영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또는 티브이 시리즈 인기 순위에서 1등을 하면 10점, 10등을 하면 1점, 순위에 없으면 0점인 변수이다. 분석 결과 두 변수 모두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케이콘텐츠가 방한 외래객 유치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결과이다. <표 4-1> 및 <표 4-2>와 지금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영화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티브이에 비해 제한적이며 크기도 작기 때문에 이하의 분석에서는 영화는 제외하고 티브이 시리즈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한다.⁴²⁾

<표 4-5> 기본 모형: 케이콘텐츠 1등 횟수, 5등 이내 횟수, 10등 이내 횟수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_{ct})$

변수명	(1)	(2)	(3)
Top 1 TV _{ct}	0.037*** (0.011)		
Top 5 TV _{ct}		0.035*** (0.006)	
Top 10 TV _{ct}			0.035*** (0.005)
상수항	1.126*** (0.058)	1.126*** (0.057)	1.126*** (0.056)
국가 고정 효과	통제	통제	통제
시간 고정 효과	통제	통제	통제
관측치	35,870	35,870	35,870
결정계수	0.503	0.506	0.512
나라의 수	211	211	211

주: 표의 괄호 안은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된 표준 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by country level)이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케이콘텐츠의 방한 외래객 유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넷플릭스 인기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용한 변수는 1등 횟수(Top 1 TV_{ct}), 5등 이내 횟수(Top 5 TV_{ct}), 10등 이내 횟수(Top 10 TV_{ct})이며 각각 특정한 주에 케이콘텐츠가 1등을 몇 번 했는지, 5등 이내에 몇 번 포함되었는지, 10등 이내에 몇 번 포함되었는지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어떤 변수를 사용하여도 케이콘텐츠

42) 영화의 계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결과의 함의는 티브이 시리즈와 유사하다. 지면의 제약으로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의 인기가 방한 외래객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4>와 동일한 함의를 가진다.

<표 4-6> 기본 모형: 케이콘텐츠 누적 1등 횟수, 누적 5등 이내 횟수, 누적 10등 이내 횟수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_{ct})$

변수명	(1)	(2)	(3)
Cumulative Top 1 _{ct}	0.011*** (0.001)		
Cumulative Top 5 _{ct}		0.003*** (0.000)	
Cumulative Top 10 _{ct}			0.002*** (0.000)
상수항	1.126*** (0.055)	1.126*** (0.055)	1.126*** (0.055)
국가 고정 효과	통제	통제	통제
시간 고정 효과	통제	통제	통제
관측치	35,870	35,870	35,870
결정계수	0.576	0.571	0.571
나라의 수	211	211	211

주: 표의 괄호 안은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된 표준 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by country level)이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인기가 있었던 주의 효과만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케이콘텐츠의 인기가 특정한 주에서만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1등 횟수, 5등 이내 횟수, 10등 이내 횟수를 누적적으로 계산한 누적 1등 횟수, 누적 5등 이내 횟수, 누적 10등 이내 횟수를 계산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인 변수가 그렇지 않은 변수에 비해서 계숫값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케이콘텐츠의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방한 외래객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표 4-6>에서 제시하고 있다. 계수의 값은 예상과 마찬가지로 누적 1등 횟수, 누적 5등 이내 횟수, 누적 10등 이내 횟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양의 값을 가지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판단하면, 케이콘텐츠가 방한 외래객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보다 엄격한 분석을 위해서 넷플릭스의 인기 티브이 시리즈 오징어 게임(Squid Game)의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시점은 2021년 9월 17일로 즉시적인 방한 외래객 증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 인기 변수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누적한 변수는 앞에서의 분석과 동일하게 인기 순위에 따라 크기가 감소하여야 할 것이다. 오징어 게임의 효과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는 케이콘텐츠의 인기 순위 변수와 동일하게 오징어 게임 1등 횟수(Top 1 Squid_{ct}), 5등 이내 횟수(Top 5 Squid_{ct}), 10등 이내 횟수(Top 10 Squid_{ct})이며 각각 특정한 주에 케이콘텐츠가 1등을 몇 번 했는지, 5등 이내에 몇 번 포함되었는지, 10등 이내에 몇 번 포함되었는지를 의미한다. 상응하는 누적 변수는 오징어 게임 누적 1등 횟수(Cumul. Top 1 Squid_{ct}), 5등 이내 횟수(Cumul. Top 5 Squid_{ct}), 10등 이내 횟수(Cumul. Top 10 Squid_{ct})이다. 분석 결과는 각각 <표 4-7> 과 <표 4-8>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4-7> 기본 모형: 오징어 게임 1등 횟수, 5등 이내 횟수, 10등 이내 횟수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ourist_{ct})

변수명	(1)	(2)	(3)
Top 1 Squid _{ct}	-0.013 (0.009)		
Top 5 Squid _{ct}		-0.022*** (0.008)	
Top 10 Squid _{ct}			-0.015** (0.007)
상수항	1.126*** (0.058)	1.126*** (0.058)	1.126*** (0.058)
국가 고정 효과	통제	통제	통제
시간 고정 효과	통제	통제	통제
관측치	35,870	35,870	35,870
결정계수	0.576	0.571	0.571
나라의 수	211	211	211

주: 표의 괄호 안은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된 표준 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by country level)이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4-8〉 기본 모형: 오징어 게임 누적 1등 횟수, 누적 5등 이내 횟수, 누적 10등 이내 횟수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_{ct})$

변수명	(1)	(2)	(3)
Cumul. Top 1 Squid _{ct}	0.026*** (0.003)		
Cumul. Top 5 Squid _{ct}		0.015*** (0.001)	
Cumul. Top 10 Squid _{ct}			0.010*** (0.001)
상수항	1.126*** (0.052)	1.126*** (0.052)	1.126*** (0.052)
국가 고정 효과	통제	통제	통제
시간 고정 효과	통제	통제	통제
관측치	35,870	35,870	35,870
결정계수	0.576	0.571	0.571
나라의 수	211	211	211

주: 표의 괄호 안은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된 표준 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by country level)이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4-7〉의 계수들은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시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방역 조치들이 지속되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타당한 결과이다. 그러나 〈표 4-8〉의 분석 결과는 케이콘텐츠 누적 인기 순위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순위에 따라 계수의 값이 커지며 통계적으로도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케이콘텐츠의 방한 외래객 유치 효과가 존재함을 지지하고 있다.

2. 동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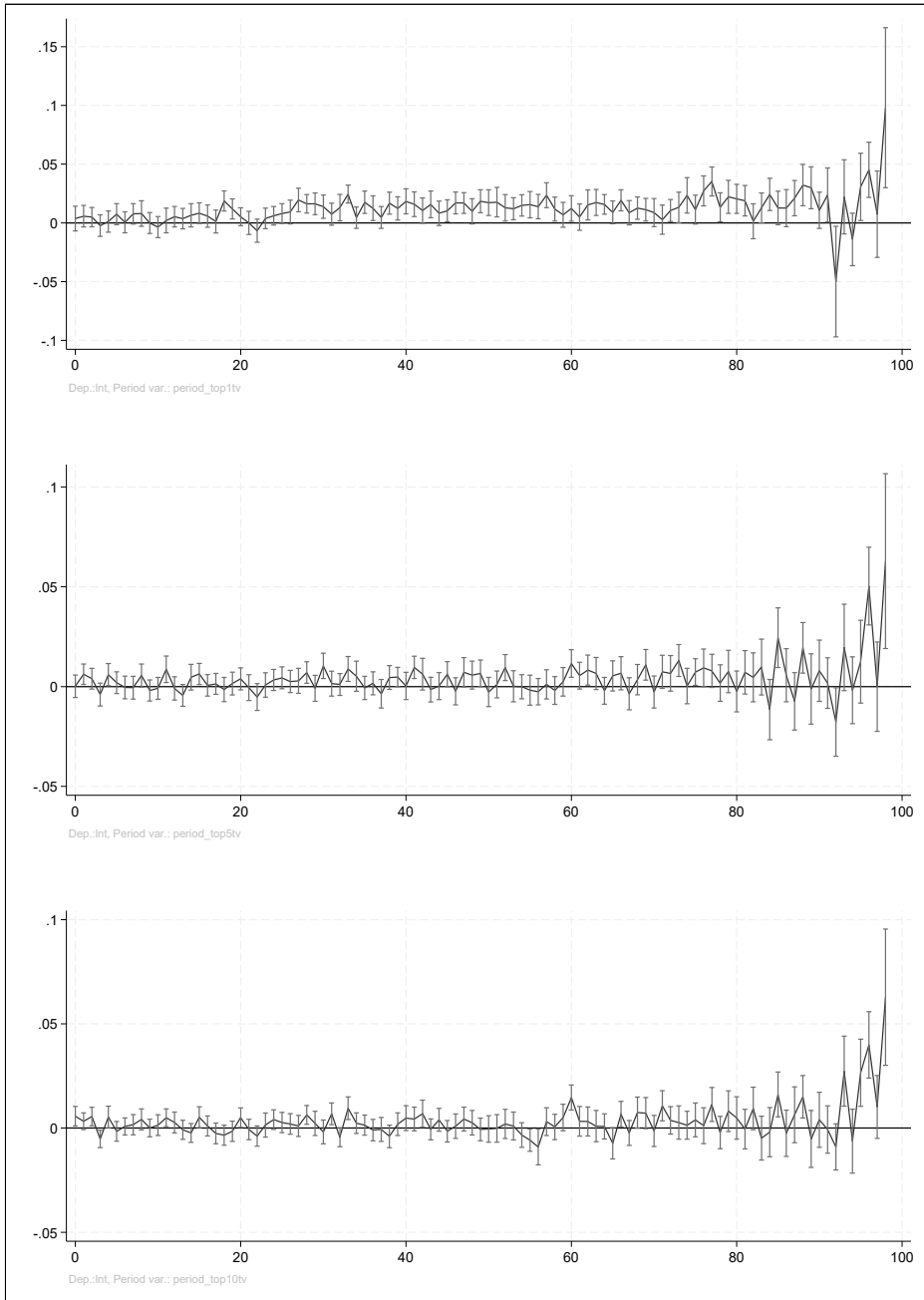
케이콘텐츠가 방한 외래객의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임을 지지하는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분석에는 추가로 논증할 부분이 있다. 분석 시간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인위적인 통제가 존재하였고, 케이콘텐츠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행을 떠나는 시점은 시창한 주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의 누적 인기 순위는 이러한 동태적인 효과(dynamic effects)의 합계를 측정하

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효과를 시기별로 분해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ln(\text{tourist}_{ct}) = \sum_{s=0}^{97} \delta_s \cdot \text{Top 1 TV}_{ct-s} + \alpha_c + \lambda_t + \epsilon_{ct}.$$

상기한 모형은 동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인기 순위 변수의 시차변수(time lags)를 다수 포함하였다. 따라서 추정된 인기 순위 변수의 계숫값이 100여 개에 가까운 관계로 표보다는 그림의 형태로 보고한다. 다음 [그림 4-9]는 동태적 효과의 추정 결과를 보고한다. 맨 위 그림은 1등 횟수(Top 1 TV_{ct-s})의 동태적 효과, 가운데 그림은 5등 이내 횟수(Top 5 TV_{ct-s})의 동태적 효과, 마지막 그림은 10등 이내 횟수(Top 10 TV_{ct-s})의 동태적 효과이다. 그림에서 검은 시계열선은 추정된 계수를, 닫힌 회색 수직선은 추정된 계수의 95% 신뢰 구간을 의미한다. 앞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된 표준 오차를 사용하였다. 맨 위 그림에서는 대부분의 계수가 양으로 추정되었으며 95% 신뢰 구간 역시 대부분 0 이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한 케이콘텐츠가 정의 효과를 가짐을 보여 준다. 또한 시차변수가 97주에 가까워질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오징어 게임의 공개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한 케이콘텐츠는 방한 외래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오징어 게임은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2>에서 오징어 게임이 인기 순위 10위 안에 포함된 횟수가 그다음으로 인기가 있던 작품의 약 2배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5등 이내 횟수와 10등 이내 횟수는 추정된 계수의 값은 양이지만 그 95% 신뢰구간이 0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1등을 한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의 방한 외래객 유치 효과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10등 이내 횟수의 추정된 계수는 상대적으로 0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6>과 <표 4-8>의 추정 결과와 일치한다. 동태적 효과의 패턴으로 볼 때, 누적 인기 순위에서 5등 이내와 10등 이내의 긍정적 효과 상당부분은 오징어 게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추정 결과는 모든 케이콘텐츠가 동일한 방한 외래객 유치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기 순위에서 1등을 한 작품에 긍정적인 효과가 집중됨을 시사한다. 또한 동일한 인기 순위 1등 작품이라도 오징어 게임처럼 높은 인기를 구가한 작품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9] 케이콘텐츠 인기의 동태적 효과: 1등 횟수(上), 5등 이내 횟수(中), 10등 이내 횟수(下)



3. 강건성 검증

본 소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кей콘텐츠의 긍정적 방한 외래객 유치 효과를 보다 엄밀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시 입증하는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책 평가 기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과 합성대조법(synthetic control method; Abadie and Gardeazabal, 2003)을 결합한 합성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 Arkhangelsky et al., 2021)을 적용하여 кей콘텐츠의 긍정적인 방한 외래객 유치 효과를 재확인할 것이다.

이중차분법은 이미 정책 평가 분야에서 고전적인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정책 연구에서도 이를 채택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e.g., 박우람·박윤수, 2015; 이준영, 2018; 진영현, 2020; 한동숙·손호성, 2021). 따라서 이중차분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직관적으로 이중차분법과 합성대조법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이중차분법의 타당성은 평행 추세(parallel trends)에 있는 반면에, 합성대조법은 통제집단을 인위적으로 가중하여 정책 도입 이전의 시기에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일한 추세를 가지도록 합성된 통제 집단(synthetic control)을 만든다.

새로운 합성이중차분법의 아이디어는 합성통제법과 이중차분법의 장점을 같이 결합한 것이다. 합성통제법처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적절히 가중하여 평행 추세를 만들고 이중차분법을 실시한다. 합성이중차분법의 아이디어를 수식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Arkhangelsky et al., 2021).⁴³⁾

$$\hat{\tau}(\omega, \lambda) = \omega_{trg}^{\top} \mathbf{Y}_{trg, post} \lambda_{post} - \omega_{cog}^{\top} \mathbf{Y}_{cog, post} \lambda_{post} - \omega_{trg}^{\top} \mathbf{Y}_{trg, pre} \lambda_{pre} + \omega_{cog}^{\top} \mathbf{Y}_{cog, pre} \lambda_{pre}.$$

여기서 *trg*는 처치군(treated group), *cog*는 대조군(control group), *pre*는 처치 전(pre-treatment) 기간, *post*는 처치후 기간(post-treatment)을 의미한다.⁴⁴⁾ 통상의 이중차분법은 가중치 벡터 ω_g, λ_p 가 고정된 상수의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통상적

43) 전치 행렬(transposed matrix)을 나타내는 기호로 경제학은 ‘ \top ’ 기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는 Arkhangelsky et al.(2021)를 따라 ‘ T ’를 사용한다. 또한 처치군을 ‘*tr*’로 표기하는 것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trg*’을 사용한다.

44) 처치군은 ‘treatment’를 받은 집단을 의미한다. 분야에 따라 실험군, 치료군 등의 역어도 널리 사용된다.

인 이중차분법은 모든 개별 단위를 동등하게 가중하므로 ω_{trg} 의 모든 원소(element)는 n_{trg}^{-1} 의 값을 갖는다. 또한 모든 개별 시점을 동등하게 가중하므로 λ_{post} 는 T_{post}^{-1} 의 값을 갖는다. 여기서 n_g , T_p 는 각각 g 집단에 속한 개체의 수, p 기간에 속한 시점의 수를 의미한다. 한편 합성이중차분법은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optimization problem)의 해를 가중치 벡터로 사용한다. 최적화 문제의 목적 함수 형태 및 합성통제법, 합성이중차분법과 관련한 추가적인 이론적 내용은 선행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Abadie and Gardeazabal, 2003; Abadie, Diamond, and Hainmueller, 2010; Arkhangelsky et al., 2021).

$$(\hat{\omega}_0, \hat{\omega}^{sdid}) = \operatorname{argmin}_{\omega_0 \in \mathbb{R}, \omega \in \Omega} \mathcal{L}_{unit}(\omega_0, \omega).$$

$$(\hat{\lambda}_0, \hat{\lambda}^{sdid}) = \operatorname{argmin}_{\lambda_0 \in \mathbb{R}, \lambda \in A} \mathcal{L}_{time}(\lambda_0, \lambda).$$

합성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케이콘텐츠가 방한 외래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에서의 인기 변수와 달리 여기서는 케이콘텐츠가 한 번이라도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하면 그 이후의 기간은 1 아닌 경우에는 0인 더미 인기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이므로 추정된 계수의 의미가 앞에서의 분석과 다르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표 4-9> 합성이중차분법 처치 효과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_{it})$

효과	인기변수	Top 1 TV 더미 (1)	Top 5 TV 더미 (2)	Top 10 TV 더미 (3)
ATT		0.724***	0.718***	0.694***
(Bootstrap)		(0.088)	(0.085)	(0.086)
[Placebo]		[0.097]	[0.098]	[0.106]

주: 표의 소괄호(parentheses) 안은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산 추정량, 대괄호(brackets) 안은 플라시보(偽藥: placebo) 분산 추정량을 사용하여 추정한 표준 오차이다. 표준 오차는 선행 연구(Arkhangelsky et al., 2021) 제4절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각 표준 오차는 400회 시뮬레이션 복원(simulation replications)에서 추출하였다.

합성이중차분법 추정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결과 해석을 위한 분산 추정량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

는 부트스트랩 추정량을 사용하였다.⁴⁵⁾ [그림 4-11]부터 [그림 4-13]까지는 1등 더미, 5등 이내 더미, 10등 이내 더미를 합성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다.

[그림 4-11] 합성이중차분법: 1등 더미



주: 그림 첫째 줄의 시계열도에서 실선은 처치군(treated group), 점선은 대조군(control group)을 의미한다. 시계열도의 수직 점선(dashed-vertical line)은 오징어 게임을 공개한 2021년 32주 차를 나타낸다. 그림의 두 번째 줄은 국가별 가중된 차이를 보여 준다. 가중치는 점의 크기와 비례한다. 국가별 차이의 이질성이 관찰되나 다수의 국가는 평균선 위에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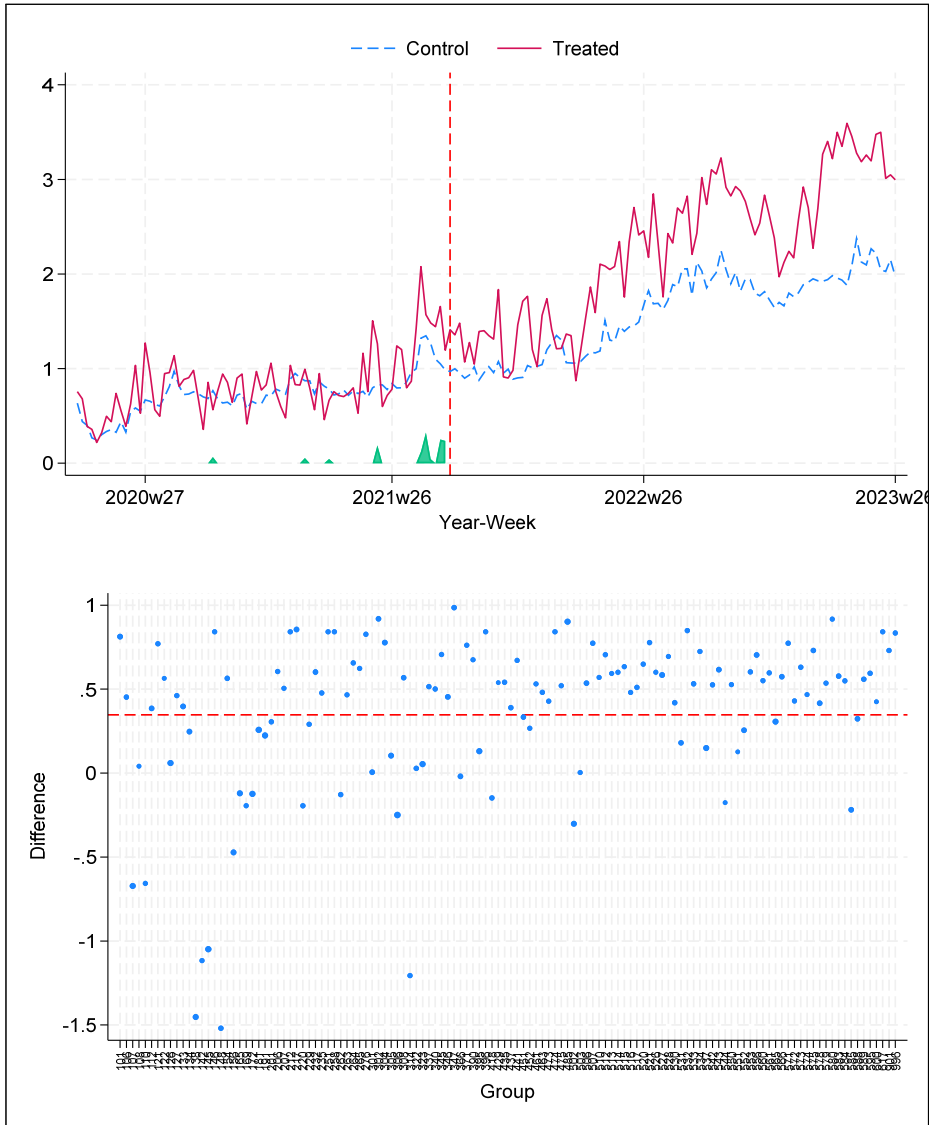
45) 추가적으로 플라시보 추정량도 같이 표기하였다.

[그림 4-12] 합성이중차분법: 5등 이내 더미



주: 그림 첫째 줄의 시계열도에서 실선은 처치군(treated group), 점선은 대조군(control group)을 의미한다. 시계열도의 수직 점선(dashed-vertical line)은 오징어 게임을 공개한 2021년 32주 차를 나타낸다. 그림의 두 번째 줄은 국가별 가중된 차이를 보여 준다. 가중치는 점의 크기와 비례한다. 국가별 차이의 이질성이 관찰되나 다수의 국가는 평균선 위에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13] 합성이증차분법: 10등 이내 더미



주: 그림 첫째 줄의 시계열도에서 실선은 처치군(treated group), 점선은 대조군(control group)을 의미한다. 시계열도의 수직 점선(dashed-vertical line)은 오징어 게임을 공개한 2021년 32주 차를 나타낸다. 그림의 두 번째 줄은 국가별 가중된 차이를 보여 준다. 가중치는 점의 크기와 비례한다. 국가별 차이의 이질성이 관찰되나 다수의 국가는 평균선 위에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11], [그림 4-12], [그림 4-13] 모두에서 오징어 게임 공개 시점인 2021년 32주 이후로 처치군과 대조군의 평균적인 차이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가중치 그림 역시 케이콘텐츠가 평균적으로 정의 효과를 가짐을 보여 준다. 여기서 앞선 [그림 4-1], [그림 4-2] 등에서 케이콘텐츠의 인기 순위가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로 현격하게 높아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합성이증차분법의 분석 결과는 오징어 게임 이후로 케이콘텐츠의 인기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전적인 이원 고정 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으로 케이콘텐츠의 방한 외래객 유치 효과를 다시 검증하도록 한다. 앞에서 제시한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이나 동태적 효과의 설정과 유사하지만 합성이증차분법과 마찬가지로 1등 더미(Dummy Top 1 TV_{ct}), 5등 이내 더미(Dummy Top 5 TV_{ct}), 10등 이내 더미(Dummy Top 10 TV_{ct})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모형 설정은 다음과 같다.

$$\ln(\text{tourist}_{ct}) = \delta \cdot \text{Dummy Top 1 TV}_{ct} + \alpha_c + \lambda_t + \epsilon_{ct}.$$

$$\ln(\text{tourist}_{ct}) = \delta_d \cdot \text{Dummy Top 1 TV}_{ct} + \sum_{s=2021}^{2023} \delta_s \cdot \text{Dummy Top 1 TV}_{ct} \times S + \alpha_c + \lambda_t + \epsilon_{ct}.$$

첫째 수식은 인기 더미 변수만을 사용하는 회귀분석, 둘째 수식은 인기 더미 변수의 효과를 연도별로 분해하는 회귀분석이다. 여기서 S는 s년도에 1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이다. 2021-2023년도의 효과를 δ에서 분리하게 되면 남은 1등 더미(Dummy Top 1 TV_{ct})의 효과는 자연스럽게 2020년도의 효과가 된다.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처치 효과는 <표 4-10>, <표 4-11>, <표 4-12>에 제시되어 있다. 이원 고정 효과 모형에서도 인기 변수의 정의가 느슨할수록 처치 효과의 크기가 작아지며, 처치 효과를 연도별로 분해한 결과에서도 2023년에 가까워질수록 처치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처치 효과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합성이증차분법을 적용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장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케이콘텐츠가 상당한 수준으로 방한 외래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합성이증차분법으로 추정된 계수를 사용하여 케이콘텐츠의 방한 외래객 유치 효과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약 100.2-106.3% 수준이다.⁴⁶⁾ 케이콘텐츠가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방한 외래객의 수가 대략 두 배로 증가하는 셈이다.⁴⁷⁾

〈표 4-10〉 이원 고정 효과 모형 처치 효과: 1등 더미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_{ct})$

변수명	(1)	(2)
Dummy Top 1 TV_{ct}	0.855*** (0.088)	-0.749*** (0.108)
Dummy Top 1 $TV_{ct} \times 2021$		0.763*** (0.097)
Dummy Top 1 $TV_{ct} \times 2022$		1.715*** (0.131)
Dummy Top 1 $TV_{ct} \times 2023$		2.192*** (0.168)
상수항	1.126*** (0.054)	1.126*** (0.054)
국가 고정 효과	통제	통제
시간 고정 효과	통제	통제
관측치	35,870	35,870
결정계수	0.541	0.573
나라의 수	211	211

주: 표의 괄호 안은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된 표준 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by country level)이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46) 증가율은 추정된 계수를 자연대수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1.06267 \approx e^{.724} - 1$).

47) 그렇지만 이를 케이콘텐츠의 인기가 언제나 두 배의 방한 외래객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억제된 수요가 방한 외래객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을 수 있다. 케이콘텐츠 인기 지역에서의 방한 외래객 증가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정책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케이콘텐츠의 인기가 방한 외래객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그 정확한 크기나 지속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4-11〉 이원 고정 효과 모형 처치 효과: 5등 이내 더미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_{ct})$

변수명	(1)	(2)
Dummy Top 5 TV_{ct}	0.757*** (0.087)	-0.490*** (0.105)
Dummy Top 5 $TV_{ct} \times 2021$		0.580*** (0.077)
Dummy Top 5 $TV_{ct} \times 2022$		1.481*** (0.127)
Dummy Top 5 $TV_{ct} \times 2023$		1.957*** (0.172)
상수항	1.126*** (0.053)	1.126*** (0.054)
국가 고정 효과	통제	통제
시간 고정 효과	통제	통제
관측치	35,870	35,870
결정계수	0.531	0.574
나라의 수	211	211

주: 표의 괄호 안은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된 표준 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by country level)이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4-12〉 이원 고정 효과 모형 처치 효과: 10등 이내 더미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객, $\ln(\text{tourist}_{ct})$

변수명	(1)	(2)
Dummy Top 10 TV_{ct}	0.637*** (0.088)	-0.728*** (0.194)
Dummy Top 10 $TV_{ct} \times 2021$		0.788*** (0.171)
Dummy Top 10 $TV_{ct} \times 2022$		1.700*** (0.214)
Dummy Top 10 $TV_{ct} \times 2023$		2.176*** (0.236)
상수항	1.126*** (0.054)	1.126*** (0.054)
국가 고정 효과	통제	통제
시간 고정 효과	통제	통제
관측치	35,870	35,870
결정계수	0.519	0.576
나라의 수	211	211

주: 표의 괄호 안은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된 표준 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by country level)이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제4절 소결

이전 장의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관광수지가 현재보다 개선될 가능성과 악화될 가능성이 동시에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관광공급 능력의 감소와 은퇴한 유산층의 해외여행 등의 채널을 통해 관광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과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경제 성장은 관광수지 적자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⁴⁸⁾

따라서 앞으로 관광수지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방향성이 다소 불투명하다. 첫째는 방향성이 다른 두 효과가 상존하고 있으며, 둘째는 우리나라와 인근 국가의 상대적인 소득차이 감소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보다 인근 국가의 경제 성장에 더 크게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와 인근 국가의 소득 차이 감소는 해당 국가의 상황이나 정책에 더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수지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통한 관광수지의 개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관광수지는 인바운드 지출과 아웃바운드 지출의 차이이고, 아웃바운드 지출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달려 있지만 인바운드 지출은 인접 국가의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 여기서 인접 국가의 아웃바운드 증가는 분명히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에 좌우되지만, 그 목적지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⁴⁹⁾ 즉, 다른 나라의 아웃바운드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우리의 인바운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관광수지의 적극적인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⁵⁰⁾

48) 다만 인구 고령화는 관광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변화 요소이므로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만으로 관광수지의 방향성에 대한 명확하고 단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인구 고령화와 국제관광, 관광수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49)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가 관광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해외여행의 증가는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행 목적지의 선택은 정보, 가격 경쟁력, 기존 여행의 만족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Seddighi and Theocharous, 2002; Pestana et al., 2020).

본 장에서 제시한 넷플릭스 인기 순위 데이터의 실증분석 결과는 상술한 형태의 관광수지 개선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케이콘텐츠가 더 인기가 있는 지역에서의 관광객 유입이 빠르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인기 있는 케이콘텐츠의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케이콘텐츠의 관광객 유치 효과는 다양한 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강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시차 분석과 최신 기법인 합성이중차분법에서도 정책적 함의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케이콘텐츠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 산업과 관광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와 서비스수지 개선의 성립이 모두 가능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⁵¹⁾ 따라서 양질의 케이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상품화 수준을 넘어 관광까지 고려하는 미디어 프랜차이즈(media franchise)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 50)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에 따라서 우리의 인바운드 증가를 기대하거나, 경제 상황의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아웃바운드 감소를 기대하는 방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의 해외 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 역시 방한 외래객 1인을 유치하는 비용과, 해외 여행객 1인을 국내 여행객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보다 비용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방안이 타당할 수 있다.
- 51) 관광수지가 아니라 서비스수지의 개선인 이유는 케이콘텐츠 수출액은 대부분 개인·문화·여가서비스수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콘텐츠의 수출은 계약 방식에 따라 통계상 집계되는 계정이 실무적으로 크게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일러둔다. 관련 내용은 본 연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는다.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관광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찰하고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발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관광수지는 국제통화기금의 BPM6 기준을 따라서 작성되고 있다. 해당 기준은 출장, 개인 여행, 유학, 운송 등 여행 성격 및 지출 항목별로 여행 계정(travel account) 포함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 등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하다.⁵²⁾ 국제통화기금도 이러한 핀테크(fintech) 기술이 금융 및 거시 관련 통계에서 포착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국제수지 기준인 BPM6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IMF, 2009; Financial Payments System Task Team, 2022). 따라서 핀테크를 사용한 국제 거래의 통계 반영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로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놓여 있다.⁵³⁾ 이는 해당 기간 우리나라의 소득 상승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았기 때문으로, 급속도의 소득 수준 성장이 해외여행 수요도 빠르게 증가시켰다.⁵⁴⁾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여행수지 흑자를 기록한 기간은 모두 아시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해당한다. 해당 시기에 해외여행이 감소하여 여행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또는 저성장하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었고 해외여행 수요 역시 감소하였다. 둘째,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해외여행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국가 차원

52) 'e-money'나 'mobile money' 등으로 불린다. 중국인 관광객이 위챗페이(WeChat Pay)를 사용한다는 것은 유명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간편 결제 시스템의 등장하여 국제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53)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관광수지는 일반여행수지와 동일하다.

54) 관광수지의 국제비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는 중국의 관광수지가 같은 경로를 따라서 적자로 전환된 상황이다.

의 위기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려는 국민적 움직임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여행수지도 비교하였다. 국제 비교에서 기간이 경과하여도 여행수지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사례는 드물게 나타났다. 예외적인 사례인 일본과 홍콩은 모두 중국과 인접한 덕분에 여행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중국은 여행수지가 흑자에서 막대한 적자로 전환되었다. [그림 2-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본의 흑자 전환과 중국의 적자 전환은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즉, 충분한 소득 수준에 도달한 이후로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또한 여행수지는 명목 금액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여행수지의 개선은 수지 자체의 증감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국내총생산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여행수지가 대부분의 시기에 적자인 것은 사실이나 국내총생산과 비교한 여행수지비(TA/GDP)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여행수지비를 기준으로 여행수지가 가장 악화된 시점은 최근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추이는 우리 경제 규모와 비교한 여행수지가 개선됨을 보여 준다. 또한 그림 상으로 우리나라의 여행수지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⁵⁾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경제적인 변수들이 관광수지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 소득, 세계 실질 성장률과 자국 실질 성장률의 차이 등이 모형 설정과 큰 관계없이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해외여행이 정상재라는 가정 아래 소득 증가가 아웃바운드 증가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므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상대 소득이 관광수지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사실은 일본의 관광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중국의 관광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점을 잘 설명해 준다. 최근 십 수년 동안 일본과 우리의 소득은 대등한 수준이 되었으며, 중국도 국민소득 만 불을 넘어섰다.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중국 양방향에서의 관광객 증가라는 수혜를 입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주로 중국으로부터의 국제 관광객 증가를 경험하였다. 일본의 소득 정체로 일본인 아웃바운드 증가는 정체되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일본인 관광객 증가는 해당 기간 동안 미미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우리와의 소득 격차가 감소하게 되면 관광수지는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단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55) 국내총생산 대비 여행수지가 크게 변화하는 국가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이었다.

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관광자원의 감소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또한 상대 소득의 차이 감소가 우리의 노력보다 상대 국가의 경제 성장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광수지 개선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수지 영향요인과 별도의 분석을 통해 양질의 케이콘텐츠가 방한 외래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인 OTT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의 일일 인기 순위 데이터를 수집하여 방한 외래객 데이터와 결합하였다. 수집된 넷플릭스 데이터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케이콘텐츠는 ‘오징어 게임’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지금 우리 학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도 상당한 인기를 구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콘텐츠의 국제적인 인기가 오징어 게임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넷플릭스 인기 순위 변수를 사용하는 다양한 회귀분석에서 케이콘텐츠가 방한 외래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추가적인 동태적 분석 및 영향 평가(impact evaluation)에서도 모두 케이콘텐츠는 방한 외래객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정책 평가 기법인 합성이중차분법과 고전적인 이원 고정 효과의 처치 효과는 유사하였으며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양한 분석 모두에서 케이콘텐츠의 인기가 방한 외래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케이콘텐츠가 방한 외래객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합성이중차분법 계수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케이콘텐츠가 인기 순위 1등을 한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와 비교하여 약 106.3%의 방한 외래객이 더 방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관광수지의 국제 비교 결과로 판단하면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인 해외관광의 증가로 말미암아 일본처럼 관광수지 흑자로 전환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의 관광수지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인 해외여행이 적절한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폭은 지금보다도 더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국내관광 자원을 가진 중국의 관광수지 적자를 볼 때, 아웃바운드의 억제보다는 지금까지와 같이 지속적인 인바운드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수지 개선 전략의 유지가 실제 관광수지의 개선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⁵⁶⁾ 또한 관광수지 영향요인의 분석 결과가 상대 소득의 감소가 관광수지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 성장에 따르는 관광수지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수지의 개선은 상당한 시간 소요와 함께 타국의 경제 성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광수지 개선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적극적인 인바운드 유치 확대로 관광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넷플릭스 인기 순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케이콘텐츠의 방한 외래객 유치 효과를 추가로 측정하였다. 오징어 게임의 공개 이후로 케이콘텐츠가 인기 순위 1등을 차지한 국가에서 더 빠르게 방한 외래객이 증가함을 다양한 회귀분석과 영향 평가 기법으로 보여 주었는

56) 개인의 선택에 의존하여야 하는 아웃바운드 억제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국내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경험을 하거나 이국적인 문화재를 보기 위한 해외여행은 국내여행으로 대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랜드 캐니언(Grand Canyon)이나 성 베드로 대성당(St. Peter's Basilica)이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는 국내의 어트랙션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역으로 케이콘텐츠와 관련한 체험은 다른 국가가 대체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아웃바운드 억제보다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인바운드 유치 확대 전략으로 이어진다.

데, 이는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방한 외래객의 유치 및 관광수지의 개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이다.

우리나라의 방한 외래객은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는 아웃바운드이다. 선행 연구(조아라·김형중, 2019; 이원희·김형중·강지수, 2021) 및 앞선 국제적 비교나 여행수지 분석에서도 경제 성장은 아웃바운드와 여행수지 적자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나타났다. 방한 외래객 유치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때마침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도, 일본인 관광객이 담보 상태인 것도 모두 해당 국가의 경제와 큰 관련이 있다. 두 국가의 방한 외래객이 수치상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였던 반면에 같은 기간 일본 경제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바운드 시장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와 인접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유치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김형중, 2023). 마침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도 케이콘텐츠의 인기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지역에서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은 비용 효과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세계 각국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어트랙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어트랙션의 존재는 해당 지역의 해외 방문객 유치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로 너무나도 유명한 디즈니랜드 리조트(Disneyland Resort)와 다양한 영화 원천 IP를 보유한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 등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어트랙션이 다수 존재한다.⁵⁷⁾ 우리와 이웃한 일본도 테마파크 시장의 도쿄 디즈니 리조트(東京ディズニーリゾート)와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ユニバーサル・スタジオ・ジャパン) 점유율이 크기는 하지만 에도 원더랜드(江戸ワンダーランド), 지브리 파크(ジブリパーク)나 산리오 퓨로랜드(サンリオピューロランド)처럼 일본의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테마파크 역시 보유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 미미하던 시절에는 자체적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방한 외래객 유치가 현실 감각이 부족한 전략으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케팅 수준을 뛰어넘어 자체적인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방한

57)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활용이 무조건 방문객 유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적재산권의 활용이 성공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가 동시에 있어야만 한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필두로 대중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다양한 캐릭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니버설 스튜디오 역시 할리우드 영화들을 기반으로 다수의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외래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었다고 본다. 이미 미국의 U.S. 뉴스 & 월드 리포트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Cultural Influence)을 세계 7위로 평가하고 있다.⁵⁸⁾ 우리나라는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인구는 작고 국토는 협소한 편이다. 더욱이 급속도로 인구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관광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관광의 주요 요소인 먹거리나 볼거리는 상대적으로 짧은 인구, 국토 면적 등에 어느 정도 비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적 자원인 케이콘텐츠는 방한 외래객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케이콘텐츠의 방한 외래객 유치 효과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만큼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케이콘텐츠를 활용하는 미디어 프랜차이즈(media franchise) 전략이 한 가지 예시가 될 것이다. 일본의 유명 게임회사 닌텐도는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유니버설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슈퍼 닌텐도 월드(スーパー・ニンテンドー・ワールド)를 개발하여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슈퍼 닌텐도 월드는 크게 성공하여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도 개장하였으며, 그 외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도 개장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에 있다.

이미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가 동시에 케이콘텐츠를 시청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테마파크들은 지적재산권 활용보다 주로 신규 장비의 설치와 공간 확장 위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방문객을 넘어서 해외의 방문객까지 유치하기 위해서는 닌텐도의 예시처럼 케이콘텐츠를 활용하는 미디어 프랜차이즈(media franchise)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⁵⁹⁾ 우리나라의 테마파크에 오징어 게임이나 방탄소년단 체험관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 효과는 국내 관광객 유치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미디어 프랜차이즈는 콘텐츠 제작사의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신규 수입원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이는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을 동시에 살리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다.

그러나 실패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테마파크의 신설처럼 많은 초기 투자가 필

58) 해당 순위는 U.S. 뉴스 & 월드 리포트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https://www.usnews.com/news/best-countries/rankings/influence>

59) 물론 국내에서 자체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업체들도 있으나, 해당 지적재산권이 관광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방한 외래객 유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인다.

요하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방안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각 지역의 테마파크와 케이콘텐츠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방한 외래객의 지역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⁶⁰⁾ 이러한 형태의 미디어 프랜차이즈는 아직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시도된 바가 없었으므로 시장이 충분히 성숙할 시점까지 정부의 개입과 정책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디어 프랜차이즈의 성공을 위해서는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 기업 지원 등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창구의 단일화를 고민해야 한다. 해당 정책은 문화와 관광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콘텐츠 정책의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케이콘텐츠 미디어 프랜차이즈 사업 집행의 효과성을 수시로 측정하고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강구하여 나간다면, 문화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좋은 신규관광 자원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0)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해외의 노선 교통망이 잘 정비된 입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관광객 유치는 어려울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형중. (2019). 시계열 데이터로 바라본 중국인 방한관광.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34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형중. (2023). 경제 성장, 환율, 지리적 위치, 그리고 방한 관광. 한국관광정책 제91호, 70-76.
- 대통령실. (2022, October 7). 윤석열 대통령,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박우람, 박운수. (2015).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시리즈 2015-24. 한국개발연구원.
- 이원희, 김형중, 강지수. (2021).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 방한시장 분석 및 정책과제. 정책연구 2021-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준영. (2018). ICT 분야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성 분석.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 조아라, 김형중. (2019). 국민의 해외여행 동향 분석. 정책연구 2019-0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중앙일보. (2023, May 31). 커지는 여행수지 적자...국내여행 매력도 한층 높여야.
- 진영현. (2020).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 기업 TFP 측정을 중심으로. 기관-2019-06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은행. (2003, March 24). 최근의 서비스수지 동향 및 시사점.
- 한동숙, 손호성. (2021).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이 고용과 기업 성과에 미친 효과. 수시연구과제 2021-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Abadie, A., Diamond, A., & Hainmueller, J. (2010). Synthetic control methods for comparative case studies: Estimating the effect of California's tobacco control program.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05(490), 493-505.
- Abadie, A., & Gardeazabal, J. (2003). The economic costs of conflict: A case study of the Basque Country. *American Economic Review*, 93(1),

113-132.

- Arkhangelsky, D., Athey, S., Hirshberg, D. A., Imbens, G. W., & Wager, S. (2021). 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 *American Economic Review*, 111(12), 4088-4118.
- Blunk, S. S., Clark, D. E., & McGibany, J. M. (2006). Evaluating the long-run impacts of the 9/11 terrorist attacks on US domestic airline travel. *Applied Economics*, 38(4), 363-370.
- Chang, S. C., & Lai, F.-T. (2011). Intra-continental and intercontinental service trade in the travel and tourism industry. *Tourism Economics*, 17(5), 963-82.
- Cheng, K. M., Kim, H., & Thompson, H. (2013). The exchange rate and US tourism trade, 1973-2007. *Tourism Economics*, 19(4), 883-896.
- Chi, J. (2015). Dynamic impacts of income and the exchange rate on US tourism, 1960-2011. *Tourism Economics*, 21(5), 1047-1060.
- Chinn, M. D., & Prasad, E. S. (2003). Medium-term determinants of current accounts in industrial and developing countries: An empirical explo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9(1), 47-76.
- Chinn, M. D., & Ito, H. (2007). Current account balances, financial development and institutions: Assaying the world "saving glut".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6(4), 546-569.
- De Vita, G., & Kyaw, K. S. (2013). Role of the exchange rate in tourism demand. *Annals of Tourism Research*, 43, 624e627.
- Dogru, T., Isik, C., & Sirakaya-Turk, E. (2019). The balance of trade and exchange rates: Theory and contemporary evidence from tourism. *Tourism Management*, 74, 12-23.
- Dogru, T., Sirakaya-Turk, E., & Crouch, G. I. (2017). Remodeling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Old theory and new evidence. *Tourism Management*, 60, 47-55.
- Eilat, Y., and Einav, L. (2004).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tourism: A three-dimensional panel data analysis. *Applied Economics*, 36, 1315-1327.
- Financial and Payments Systems Task Team. (2022, March 7-10). F.7 Impact of Fintech on Macroeconomic Statistic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oint Thirty-Eighth Meeting of the IMF Committee on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and Eighteenth Meeting of the Advisory Expert Group on National Accounts, Remote Meeting.

<https://www.imf.org/external/pubs/ft/bop/2022/pdf/38/22-03a.pdf>

- Gruber, J. W., & Kamin, S. B. (2007). Explaining the global pattern of current account imbalance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6(4), 500-522.
- Gruen, A. C. (1980). Travel time and transportation policy. *Journal of Urban Economics*, 8(2), 264-271.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09).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6th ed.).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n.d.). Update of the sixth edition of the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BPM6)*. Retrieved August 31, 2023, from <https://www.imf.org/en/Data/Statistics/BPM>
- Kimura, F., and Lee, H. H. (2006). Gravity equation i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Review of World Economics*, 142(1), 92-121.
- Lee, C.-K., Var, T., & Blaine, T. W. (1996). Determinants of inbound tourist expenditur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3), 527-542.
- Naudé, W.A., and Saayman, A. (2005). The determinants of tourist arrivals in Africa: a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Tourism Economics*, 11(3), 365-391.
- Pestana, M. H., Parreira, A., & Moutinho, L. (2020). Motivations, emotions and satisfaction: The keys to a tourism destination choice.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16, 100332.
- Sara, S. Su, J. -J. Campbell, N. (2017) Does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matter for inbound tourism? A cross-national panel data estim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56(2), 221-234.
- Seddighi, H. R., & Theocharous, A. L. (2002). A model of tourism destination choic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Tourism Management*, 23(5), 475-487.
- Song, H., Li, G., Witt, S. F., & Fei, B. (2016). Tourism demand modelling and forecasting: How should demand be measured? *Tourism Economics*,

16(1), 63-81.

- Tsekeris, T. (2009). Dynamic analysis of air travel demand in competitive island markets.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15(6), 267-273.
- Vanhove, N. (2018). *The Economics of Tourism Destinations: Theory and Practice* (3rd ed.). Routledge.
- Yazdi, S. K. & Khanalizadeh B. (2017) Tourism demand: A panel data approach. *Current Issues in Tourism*, 20(8), 787-800.

ABSTRACT

Tourism Balance: Macro and Micro Level Empirical Analyses with Policy Implications

Hyoungjong Kim, Dong-Eun Rhee

Korea has been facing a persistent tourism balance deficit due to the growing number of outbound tourists yearly. This study conducts various empirical analyses to examine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is deficit and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travel account. Time series and cross-country comparisons identify the stylized facts of Korea's tourism balance. We apply panel regressions with the World Bank's data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ravel account variations across countries and year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rapid economic growth increases the demand for outgoing international travel, which may lead to a negative travel balance for an economy. Thus, Korea's negative tourism balance may be considerably related to the fact that Korea has been one of the fastest-growing economies in recent decades. We further estimate the impact of high-quality content on 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deficit. We collect Netflix's Top 10 lists from the Internet as a proxy for TV shows' popularity in different countries. Impact evaluation regressions show that well-made TV shows like *Squad Game* can attract more tourists to Korea. This implie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media franchising and marketing.

Keywords

Cultural Economics, Current Account, Impact Evaluation, International Tourism

집필 내역

연구 책임

김형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총괄

공동 연구

이동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관광수지 영향요인 선행 연구 검토 및 실증 분석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3년 11월 17일

발행일 2023년 11월 17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79-6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3.e9>

이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김형중·이동은(2023),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3.e9>

